아토피 · 건선 · 난치성피부질환전문
조원한의원
진료시간 오전 9:00~1:00 (점심시간 1:00~2:00) 오후 2:00~7:00 (토·공휴일 5시까지, 주일 휴진)
원장 송 창 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231-2
Tel : 02)2264-8822 · 8833
Fax: 02)2264-8833

JTNTV.KR 지저스타임즈 신문

지저스타임즈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신학생 모집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에 대해 자세한 것은 본보 광고 참고
주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 출구 송내역방향 200m)
대표전화:032)323-5552, Fax : 032)322-0099
H · P:010)2956-9191 야간:032)321-9109 E-mail : keyone209@hanmail.net

▮이사장 : 정기환 ▮사장 : 소진우 ▮발행 · 편집인 : 정기남 ▮대표전화 : 032-672-3031
www.JTNTV.kr (인터넷 방송)
2012년 4월 29일 주일 [53호]

고신총회, 논산 육군훈련소 4,200여 장병에 세례식


정병두 목사
고신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는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연무대군인교회와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주관하고 예장고신총회가 후원하는 장병 진중세례예식이 거행되었다.

총회와 안양일심교회가 후원하고 37개 노회가 협력하여 무려 4,200여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식에는 각 노회에서 노회장과 군선교위원회, 장로부노회장과 회계 등 목사 2인 장로 2인이 조를 이루어 참여하였다.

이날 세례식에 참여한 4,200여명 가운데는 약 400여명은 기존 신자로 세례를 받고 온 장병들이었는데 이들이 참 중요한 일들을 했다고 연무대군인교회 신현복 군목이 전했다. 각 내무반에서 전도하고 교회로 이끈 장병이기에 그들에게는 세례 대신 축복기도를 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교육관에서는 집례자들에게 군선교현황보고 및 준비 기도회가, 본당에서는 세례자들에게 세례교리 문답이 진행되었다. 1부 예배는 신현복 군목의 인도로 김창대 장로(부총회장)가 기도하고 정은일 목사(군선교위원회 서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5:16-18의 성경을 봉독하고 안양일심교회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다.

김홍석 목사(안양일심교회)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을 지키면 된다. 첫째는, Always be joyful. 둘째는, never stop praying. 셋째는, keep thanking God 이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이날 임종수 사무총장이 축사를, 황은선 목사(군선교부 상임총무)가 기념품을 증정했다. 고신총회가 세례식에 후원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답례로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윤광중 목사(군선교위원장)에게 기념액자를 증정하고 이학수 목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사무총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세례식이 진행되고 먼저 세례대상자들에게 신현복 목사가 세례서약을 하고 세례식이 거행되었다. 약 150여명의 목사와 장로가 각각 한 조를 이루어 75개조를 만든 뒤, 다시 그것을 A, B, C 팀으로 나누어 수세에 임하여 목사 장로 한조가 각각 약 50여명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를 받은 장병들은 안양일심교회 권사들이 수건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면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주고 안아주어 어머니의 사랑을 나누었다.

군선교위원회는 이날 세례 받은 장병들을 축하하는 의미로 성경, 십자가목걸이, 폼클린징, 빵과 음료 등을 담은 선물세트를 세례식에 참여한 모든 장병들에게 증정했다.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11개 회원교단과 선교단체들의 후원과 참여로 열리고 있으며 육군훈련소(7만 여명)를 포함해 올해 전국에서 약 20여만 명의 군 장병들이 세례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 60주년을 기념해 연무대군인교회 새 성전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소속 교단들이 협력하여 복음의 전초기지를 잘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무대교회의 올해 기도제목은 (1) 세례교인 70,500명 목표달성,(2) 새예배당건축(5,000명수용),(3) 매주일간식비(1,000만원)이다.


고신총회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

"소년원생들의 좋은 멘토 역할 할 것"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법무부 서울소년원, 안양소년원과 협약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전용태 장로)는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김정규)과 안양소년원(원장 이동환)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호소년의 교육활동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전 인천지검 검사장),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사회적기업진흥원 류시문 전 원장을 비롯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임원과 멘토링 참여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협약을 맺었다. 오후에는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멘토링 상담활동 및 각종 교육활동 지원,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청소년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상호 이용, 기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활용 및 교류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을 돕고, 이들의 재범 방지에도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소년원 김정규 원장은"학교(소년원) 안에서는 교사들이 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데, 사회로 복귀했을 때는 변화가 없는 환경 때문에 다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가족관계 회복 포로그램의 중요성을 밝혔다.

이에 전용태 장로는"범죄 예방은 관(官)으로만은 안된다."며"민(民)관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 국가는 법으로 하고, 종교계는 마음을 움직이는 멘토링을 통해 비행 청소년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소년원 이동환 원장은"소년원에 들어와 있는 청소년들을 분석해 보면 편부 29퍼센트, 편모 25퍼센트, 조부 38퍼센트"라며"특히 어느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며 이들의 부모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1월과 2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김희관 검사장과 윤용범 과장을 초청해 소년원생 실태와 멘토링에 대한 특강을 들었으며, 소년원생들을 정기적으로 도울 멘토를 선정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앞으로 서울소년원과 안양소년원 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소년원생과 그의 가족을 돕는 멘토링 사업을 지역 성시화운동본부와 협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사설

한국은 광우병 쓰나미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민들은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데 대책은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라는 조치는 당장 하지 않겠다고 한다.

농식품부는 블룸버그 통신이 25일 한국정부가 검역 중단 조치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미국에서 소 해면뇌상증(BSE)이 발생했다는 보도만으로 정부가 검역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역을 중단한다는 말은 검역 안된 쇠고기는 국내에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금지효과가 있다는 뜻이 아닌가?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주 중부의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소해면뇌상증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뇌상증이 미국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다.

이에 대해 미국 농무부는 성명에서"문제가 발생한 젖소 사체는 주 당국이 관리하고 있으며, 곧 폐기 처분할 것"이며"시중 소비자용으로 도살된 적이 없고, 우유는 BSE를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소 해면뇌상증이 사료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자연발생인지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지금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조율하는 단계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한국이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는 이번에 발생한 BSE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가축전염병 예방법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려,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미국의 BSE 발생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만 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BSE가 발생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산 소 가운데 30개월령 미만이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해왔다. SRM이란 광우병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단백질인 변형 프리온이 다량 함유돼 있는 7개 부위를 말하며, 소의 뇌와 눈, 두개골, 척수를 포함한 척추, 편도, 장시장에서 직장에 이르는 내장, 그리고 장간막 등이 SRM에 해당한다.

정부의 검역중단 조치를 당장은

미국에서 또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됐는데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어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은 대책 없는 정부에 불안하다. 한국과 미국은 2008년 6월 맺은 쇠고기 관련 추가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GATT 제20조 및 WTO 관련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고, 미국이 광우병(BSE) 청정국 지위에 부정적인 변동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으니 국민들의 가슴만 답답하다. 정말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즉각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생 모집


학장 정 기 환 목사 (D.Ed., Th.D.)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웨신총회 직영신학교로서 ▲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학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 영적 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장약력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사단법인 기독학술원 이사장 ◈세계원주민 선교회 회장 ◈글로벌 평생 교육원 원장 ◈국제기독교지도협회 총재 ◈전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저서 성경개론 외 다수

설립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초교파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전형안내 · 전형기간 : 12월 ~ 2월(봄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신앙면접

특전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남,여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성적 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각종 장학금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전도사, 선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우수한 학생은 해외 연계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학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막1:17)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과 정	학 과	기 간	자 격	비 고
학 부	신 학 과	8 학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선교학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무용학과	6 학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댄싱워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통신과정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안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 술 원	해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 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 입 생	각 학 과	1~3년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이번학기 교수진
정기환교수(조직신학) : (D.R.E., Th.D)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장광용교수(고대근동학) : (Ph.D)(濠)University of Sydney
(英)University of London
이현우교수(이스라엘역사)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맹철교수(변증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t Bochum
임칠환교수(교회정치) : (Ph.D)(美) School of Bible Seminary
최병관교수(비교종교학) : (Th.D)(美) Life University
박광보교수(주교교육) : (D.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종철교수(목회상담학) : (Th.D)長老會神大學校大學院
박종혜교수(가정상담학) : (D.C.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우금 교수(MBTI) : (Ph.D)이화여자 대학교, 피어선신학 대학원 대학교
박상국교수(교회음악) : (D.S.M)(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院
안병삼교수(교회행정) : (Th.D)(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화순교수(선교학) : (D.D)(美)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정현모교수(선교언어) : (中)中國南京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Charles McVety(교회사):(D.Lit)(蘇)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加)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CP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정통신학의 요람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5층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 · 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net

웨신, 중앙노회 제24회 정기노회 및 선교사 파송

최상규 장로, 윤경임 권사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해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중앙노회(노회장 정기환 목사) 제24회 정기노회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전원중앙교회 본당에서 개최되어, 총회장 성흥경 목사는 최상규 장로, 윤경임 권사(부부)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임명하고 파송장을 전달하면서 환송식을 가졌다.

정기노회에 앞서 부노회장 손백두 목사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서기 최재필 목사가 기도를, 부회계 정광철 목사는 요한복음 6:10~13절을 봉독하고, 노회장 정기환 목사는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부회의록서기 이기수 목사의 봉헌기도가 있었으며, 증경노회장 임칠환 목사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정일량 목사(증경노회장)의 집례로 2부 성찬식이 진행되어 신경희 목사의 기도가 있은 후 강석홍 목사, 최재필 목사 등이 분병, 분잔 위원을 맡아 봉사했다.

이어진 3부에서 노회장 정기환 목사는 노회장 및 노회원 일동으로 직전노회장 정기남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인도네시아 자바성에서 일시 귀국한 최상규, 윤경임 선교사 부부를 소개하고, 선교사 부부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총회장 성흥경 목사는 총무 신언창 목사가 대독한 선교사 파송장을 최상규 장로, 윤경임 권사에게 수여했다.

이날 총회장 성흥경 목사는 중앙노회 제24회 봄 성 노회를 축하하면서 노회장과 임원들, 노회원들을 격려하고 총회를 위해서 중앙노회가 더욱 힘써 줄 것을 지시하고, 또한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 부부를 위로와 격려로서 높이 치하하고 건승을 기원했다.

따라서 노회장 정기환 목사는 노회원들과 함께 선교사 부부를 위로와 격려로서 선교활동에 있어 늘 건강함과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것을 기원했다.

이날 전원중앙교회에서 정성을 다한 만찬이 있은 후 오후 2시 중앙노회 제24회 정기노회가 개회되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합심하여 총회를 위하고 노회와 신학교를 위하여, 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으며, 노회장 정기환 목사 축도에 이어 폐회를 선언했다.

한편 총회장 성흥경 목사와 총무 신언창 목사는 한기총 실행위원의 모임관계로 중앙노회 제24회 춘계 성 노회를 축하 한 후 발길을 재촉했다.

예장웨신 한서노회 정기노회 및 목사임직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한서노회 춘계정기노회를 4월16일 오전11시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빛과소금교회(담임 이재갑 목사)에서 개최되어 박기흥, 기정간, 김훈경, 김정석씨 등이 목사임직을 받고 중국과 대만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정기노회에 앞서 이승표 목사(노회서기)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하종우 목사(직전노회장)의 기도와 고재만 목사(부노회장)의 성경봉독(요21:15~ 22)하고 한서노회 사모회의 특별찬양으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렸다.

이어 이영풍 목사(한서노회장)는"주님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후 목사 안수식이 집례 되었다. 이어서 웨신 총무 신언창 목사가 4인의 선교사 파송장을 대독하고 성흥경 총회장은 박기흥, 기정간, 김훈경, 김정석 목사 등을 선교사로 임명하고 파송장과 격려금을 전달한 후 격려사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활동에서 항상 건승하기를 기원했다.

이어 부총회장 이재갑 목사의 권면과 박우재 교수(웨스트민스터신학원대학교)의 축사가 있었으며, 임직자 대표 박기흥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안수위원은 이영풍 목사, 이재갑 목사, 하종우 목사, 고재만 목사, 이승표 목사, 김기출 목사 이영형 목사 등이다.

한편 한서노회(노회장 이영풍 목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정기노회를 갖고 신안건과 기도회를 가진 후 마쳤다. 이날 총회장 성흥경 목사와 총무 신언창 목사는 성노회를 축하하고 노회원들을 일일이 악수로서 격려했다.



CTS 봄 전면개편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단장... 그리스도 복음 전한다

CTS가 2012 봄을 맞아 전면개편 프로그램을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CTS는 그동안 방영했던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여 봄을 맞아 창의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안방을 찾아간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CTS가 우리 이웃과 소외된 땅끝, 열방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TV방송으로 거듭 나아겠다고 다짐이다.

먼저 새롭게 선보이는 '7000 Miracles'은 매일 하나씩 7000번의 기적을 꿈꾸면서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와 신은경 권사(前 아나운서) 가 사회를 맡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아침 각기 다른 색깔로 시청자를 찾아간다.

또한 CTS는 세계 각국 나라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복음전파의 어려움이 배나 많은 복음의 불모지에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복음만 들고 떠난 선교사들과 선교 사역의 이야기들을 집중 조명하여 개편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전할 예정이다.

즉 '열방을 향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기독교 기관이나 단체, 이웃을 찾아 그들의 사역과 삶을 격려하는 한편,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현장사역을 소개하고, 그들의 눈물과 기도에 동참하는 사연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방송으로 사명을 다할 것을 전했다.

특히 개편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사랑여기에〉, 금요일은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캠페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표현하고 행동하는 후원자와 또 그 후원자의 사랑을 통해 회복되어가는 수혜자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소개하는 〈나눔의 기적〉 등 신앙과 현실사이에서 갈등하고, 크리스천으로서 삶의 방향이 확실히 서 있지 않아 상처받는 크리스천들, 신앙이 없는 넌 크리스천들까지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는 강의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은 매일 다른 목사들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삶의 방향을 재정립 하여 진정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이 외에도 주목되는 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스캇 브래너 목사의 설교 시리즈 '말씀 속으로'가 새롭게 준비되어 방영한다.

한장총 100주년의 해 사단법인 취득감사예배 드려

한국 장로교 100년 역사 담은 다큐멘터리 발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설립 100주년을 맞는 2012년 사단법인을 취득, 한국장로교 연합기관으로 사법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단체로 우뚝 섰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윤희구 목사, 이하 한장총)는 연합회의 사단법인 취득을 감사하며 이를 기념하는 예배를 12일 오전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드렸다.

한국 장로교회의 연합기관으로서 30년간 장로교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써온 한장총은 사단법인이 되면서 사회적, 법적 위상을 높였다. 또한 올해는 특히 한국장로교 총회 설립 1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도 연합기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대표회장 윤희구 목사는 이날 감사예배에서"부흥과 분열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국 장로교회를 세계 장로교 가운데 우뚝 세워주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며 장로교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윤 목사는"'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처럼 30년간 한장총을 위해 증경대표회장과 교단 총회장, 총무들이 각자의 책임을 다해주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다"며"사단법인으로서 한장총은 앞으로 교계 연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병희 목사(제28대 대표회장)는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근본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목사는"갈기갈기 찢어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며"종교개혁의 근본정신인 '5대 솔라' 즉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주께 영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한국교회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병금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한국교회는 현재 가장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다"며"한장총이 연합기관으로서 위상을 세워나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교회를 이뤄야 한다. WCC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감사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장로교 연합과 일치, 국가안보, 장로교 부흥, 다음세대 신앙교육과 신학생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날 예배에 앞서 한장총은 한국 장로교 총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100년의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발표했다.

한장총은 한국기독교방송문화원(원장 이성철)과 협력,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한국 장로교 100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다큐멘터리는 1872년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로스 선교사로부터 일제치하를 거쳐 1960~70년대 폭발적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의 모습, 이후 분열을 거듭하다 다시 연합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현재의 모습까지 장로교의 역사를 모두 담고 있다.

한장총은 다큐멘터리 보급을 위해 이를 DVD 2장으로 제작, 국내편, 해외편, 요약편, 영어더빙본을 실었다. DVD는 각 교회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한편 100주년 기념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장총은 오는 5월 11일 횃불회관에서 찬양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약 10개의 신학대학교 찬양팀이 참가할 계획이다.

또 9월 1일에는 잠실체육관에서 27개 회원 교단이 연합하는 '한국장로교총회설립100주년 기념대회'및 '한국장로교모델교회 선정식'이 있을 예정이다. 기념대회는 장로교전통예배와 성찬식, 이웃나눔실천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뉴스미션제공

창대교회 장로장립 및 권사취임 감사예배 드려

언어적, 성결적, 신앙적 신앙의 깨끗하고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자



담임 김동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창대교회(담임목사 김동민)는 지난 10일 오후7시30분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1동 소재 본당에서 장로장립 및 권사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창대교회 당회장 김동민 목사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남부노회장 이재성 목사의 기도와 인도자의 성경봉독(디모데후서 2:14~21), 시온찬양대의 찬양이 드려지고, 중부노회장 강 철 목사(총회서기/대천교회 담임)는"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강 목사는"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금 그릇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따라서 임직을 받는 장로와 권사들에게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기원했다. 그러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은 성결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언어적 성결인데(14절),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인격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다. 둘째는 도덕적 성결인데(15절),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도덕적으로 흠 잡힐 것이 없는 사람, 사람들 앞에 도덕적으로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정직이라고 했다.

셋째는 신앙적 성결인데(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아니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들어 쓰신다고 했다. 만일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귀한 목적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생명의 그릇,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된다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쓰임 받아야 할 때요, 그러면서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언어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결하게 준비하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도 넉넉히 동참하는 성도들과 임직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했다.

이어 임직식에서 당회장 김동민 목사는 김정실씨를 장로로 장립을, 홍숙자, 정지현, 김예자, 문희춘, 최덕순씨 등을 권사로 취임시켰다.

아울러 동부노회장 지태영 목사(한빛전원교회)가 축사를, 직전총회장 전충현 목사(동천교회)가 권면을, 김정실 장로의 답사와, 당회장 김동민 목사가 김정실 장로에게 기념품(성구 액자)을 증정하고, 전국장로회장 이석제 장로가 신인장로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어 전국장로회 합창단의 축가와, 창대교회 양준우 청년이 축가를, 본 교회 김일광 장로의 광고에 이어 총회장 유영섭 목사(안천교회) 축도로 마쳤다.

한편 안수위원은 유영섭, 지태영, 이재성, 강 철, 김동민 목사와 정병수 장로



지저스타임즈 |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피종진 목사 이사장:정기환 목사 사장:소진우 목사 발행인:정기남 목사

전국 20개 지사 / 해외 13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대한노회 제8회 정기노회 및 목사 임직식 가져

안수위원 장한국 오상렬 박민규 송베드로 유윤주, 안수자 이숙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대한노회(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9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소재 주사랑교회 본당에서 제8회 정기노회를 갖고 임직식에서 대한노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이숙희씨(인천라파엘교회)를 목사로 임직했다.

대한노회 서기 박민규 목사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박종연 목사가 기도를, 최옥자 목사의 성경봉독(마 7:13~14절)과 유윤주 목사(회계)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어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장 노회장은 말씀을 통해서"하나님의 종들이 사단의 세력에 이끌려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가 목적이 되어 나간다면 이는 사단의 종이요 결과는 넓은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복되게 사는 것이라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음하는 길이요 고난의 길인데 주님이 이 길을 가셨으며,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승천하셨다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해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최고의 복된 길이라고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 있는 노회원이 되기를 기원했다.

이어서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이숙희씨를 안수하고 목사가 된 것을 공포했다. 아울러 안수패를 증정하고 예장(웨신)총회 총회장 성흥경 목사의 축사를 전했으며, 총회서기 장창윤 목사의 권면이 있은 후 신임목사 이숙희 목사의 인사와 광고가 있었으며, 이숙희 신임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는 부노회장 오상렬 목사 집례로 성찬예식이 거행되어 박종연 목사, 김은임 목사가 분병, 분잔위원을 맡았다.

이어 노회장 장한국 목사 사회로 3부 회무처리가 시작되어 모든 회무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김정미 목사의 폐회기도와 노회장 장한국 목사 축도가 있은 후 폐회선언으로 4월 정기노회를 마쳤다.

한편 웨신총회 총회장 성흥경 목사는 회무처리에 앞서 제8회 4월 정기노회를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본 총회의 모범된 노회임을 치하했다. 또한 총회서기 장창윤 목사는 4월 정기노회를 축하하고 본 총회의 모든 사안을 설명하고 모범된 대한노회가 총회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한기총 WCC 반대대책위원회, 제23회 5차 전국 지도자 대회 개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WCC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우)가 16일(월) 오후 12시 사당동 총신대학교 대강당에서 '제23회 5차 전국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다.

공동회장 이기창 목사(합동 총회장)의 사회로 드려진 1부 예배에서는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공동회장 박창환 목사(고려 총회장)의 기도와 부회장 정학채 목사가 성경봉독을 한 후 한기총 직전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한국교회가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를 인정하는 WCC를 용납한다면 교회 성장이 둔화된 '제2의 유럽' 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전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WCC는 말씀 없는 허구에 지나지 않고 자칫 한국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한국교회는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명예회장 김준규 목사(합동 증경총회장)가 격려사를 전하고 증경회장 엄신형 목사(개혁총연)와 조성훈 목사(예장연 이사장)가 축사를 전했다. 엄신형 목사는 "이러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고, 즉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기독교 구원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총신대 총장 정일웅 목사가 환영사를 한 후 증경회장 이만신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회의에서는 위원장 김영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부회장 고창곤 목사가 개회기도를 하고 공동회장 최원석 목사가 경과보고를 한 후 WCC 반대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임종수 목사가 안건토의 보고를 했다. 안건으로는 1)제2차 모임에서 위임한 조직보고, 2)규칙심의, 3)제네바 WCC 본부 항의 방문, 4)제네바 WCC 본부 반대서한 보내기, 5)광역별 조직 구성의 건 등이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WCC 총회 개최(2013) 반대 투쟁의 성공을 위해"(총무협 부회장 정해송 목사), "한기총 소속 70개 교단을 위해"(부서기 송태섭 목사), "WEA 총회(2014) 성공개최를 위해"(대내외협력위원장 박중선 목사), "세계복음화와 선교사들을 위해"(윤리위원장 김창수 목사)를 놓고 기도했다.

또한 WCC 반대대책위원회 서기 강구원 목사(고려)가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한기총 총무 김운태 목사의 광고 후 위원장 김영우 목사가 폐회기도를 하고 행사는 모두 마무리 됐다.

한기총 WCC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WCC는 기독교복음 전파에 역행하고 교회건설 사명을 방해할 뿐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을 무효화시키는 반성경적, 비기독교적 단체"라고 진단한 뒤 "그러므로 한국개혁 교단은 2013년 WCC 부산총회 개최를 반대한다"며 10개항에 걸쳐 이유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WCC는 종교다원주의와 종교대화주의, 종교혼합주의, 사회구원지상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로마가톨릭주의, 가시적교회일치주의, 신앙고백형식주의, 성경불신주의를 주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개항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한기총 WCC 반대대책위원회는 WCC 반대 문구를 담은 플랜카드를 전국교회에 내걸 방침이다. 또 WCC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책자와 팜플렛, 5분 분량의 동영상을 제작한다. WCC 대책 학술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을 연 뒤 WCC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WCC 반대대책위원회 후원 ARS(060-700-0190, 1통화 1만원)을 개설했다.

최시중 엉겁결에 천기누설

선거여론조사에 자금사용 답변 하루 만에 번복, 의혹만 증폭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최근 불거진 수뢰혐의와 관련 금품수수사실을 시인하면서 2007년 대선당시 여론조사에 사용했다고 밝혔다가 청와대가 불쾌감을 드러내자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얼떨결에 그렇게 말했다"고 둘러 대자 17대 대선당시 선거여론조작의혹이 새삼스럽게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994년부터 2007년 5월까지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 회장으로서 업계를 주름잡던 인물로 알려진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2006년 6월 말 서울시장직을 그만둘 당시 박근혜 당 대표의 지지도에 절반도 못 미치던 이명박 후보의 여론조사를 담당하면서 2006년 10월 추석을 기해 수치가 수직상승하는 기적을 보여준바 있다.

물론 5~6년 전 일로 당시의 여론조사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한 〈선거여론조작〉혐의나 의혹을 직접적으로 규명해 낼 방법은 없다. 본인이나 관련자의 자백이 없는 한 검찰 수사에서 여론조사에 사용된 비용을 정밀추적을 통해서 전체 여론조사의 규모나 횟수 등 여론조작혐의를 일부 추정해 보는 데에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론조사가 후보경선의 법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은 공직선거법에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조항(제57조2의②항 2005.8.4)이 신설됨에 따라서 정당의 당헌당규나 후보 간 서면합의로 당내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여론조사기관(업체)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일체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를 결정하고, 민심동향을 측정 선거여론을 조성 표심(票心)의 향배를 좌우하는 막중한 기능이 법률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옴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선거여론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선거정보를 보도하는 신문방송통신출판의 경우 해당법률에 의해 허가 및 승인, 등록 및 신고 등 설립요건과 기준 그리고 운영에 관한 준칙이 마련 돼 있고 이를 감시감독 또는 검증할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돼 있지만 유독 선거정보의 원천인 여론조사업에 관한 한 아무런 기준도 제약도 없다는 맹점(盲點)때문에 선거여론조작에 악용됐을 소지는 충분하다.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에 선거여론조사결과 발표 및 보도에 관한 요건을 규제한 외에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제출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는 신문은 등록, 방송은 허가, 출판은 신고 제도와 의무가 있고, 공산품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농수산식품에 경우 원산지표시제도, 하다못해 자장면 피자배달용 50cc미만 오토바이도 등록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피해보상 및 범죄예방 장치와 행정감독 및 처벌근거가 있어 법적 책임이 명확한데 반하여 여론조사 만 사각지대에 방치 해 온 것이다.

최시중의 수뢰혐의와 자금사용내역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지겠지만, 2007년 대선여론조작 의혹이나 혐의는 묻혀버릴 공산이 크다. 불법자금문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긴 하지만, 선거여론조작을 통한 대선후보 바꿔치기가 〈사실〉이라고 할 때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보다 엄중한 내란외환이나 국헌문란의 대역죄와 다를 게 없다.

선거여론조작이 불량후보와 가짜대통령 만들기에 악용된다면,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①여론조사기본법제정, ②여론조사기관 설립기준 및 자격요건 강화 ③선거여론조사 전 과정 감시감독 및 자료보전과 사후검증 제도화 ④선거여론조작 처벌강화 ⑤부정선거결과 무효화 ⑥난립상태의 사이비여론조사기관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매일 먹는 김치 깍두기, 콩나물, 고등어 명태도 원산지 표시가 있고 성냥 한 통, 라이터 한 개도 제조물 책임이 있으며, 분식집 하나 구멍가게 하나를 내는 데도 사업자등록은 있어야 한다. 떡볶이 하나를 사 먹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무면허 무등록 무자격 여론조작업자가 만들어 낸 불량정치여론조작에 대한민국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

여론조작의 경우 어떤 법적용이 기능하며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최시중은 공인으로서 저지른 과오에 대하여 대한민국 역사 앞에 사죄하는 의미에서 2007년 당시의 선거여론조작의 전모를 낱낱이 고백할 의무가 있다. 사법당국은 國基를 튼튼히 한다는 측면에서 선거여론조작 혐의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책임이 있다.

컬럼니스트 백승목

[WCC 반대대책위원회] 성명서

성 명 서

세계교회협의회(이하 W.C.C.)는 기독교복음전파에 역행하고, 교회건설사명을 방해할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을 무효화시키는 반성경적, 비기독교적 단체이므로 한국 개혁교단은 W.C.C.한국총회(2013) 개최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히는 바이다.

1.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다 –** 기독교외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 즉 석가, 공자, 마호메트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행 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어떤 제한을 둘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기는 하지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 그리스도적이다.
2. **W.C.C.는 종교대화주의를 주장한다 –** 모든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타 종교인은 개종의 대상이 아니며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동료이며 영적인 순례자라고 한다.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한다. 타 종교인을 회개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 그리스도적이다.
3. **W.C.C.는 종교혼합주의를 주장한다 –** 모든 종교는 똑같으므로 통합시키려는 것이 WCC의 목표이다. 성령님을 우주 만물에 내재하는 에네르기와 동일시하고 목석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범신론을 주장하며 기독교 성령을 귀신과 동일시하여 초혼제를 지내고 귀신의 장난을 마치 성령의 역사인 냥 속여 성령하나님을 모독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혼돈케 하고 있다.
4. **W.C.C.는 사회구원지상주의를 주장한다 –** 인간화, 혁명투쟁, 빈곤퇴치, 정치혁명, 질병퇴치, 해방투쟁, 세상의정치, 사회, 문화, 환경, 평화, 이데올로기 극복, 구조악철폐 등 사회구원지상주의를 주장한다.
5. **W.C.C.는 용공주의를 주장한다 –** 인종차별철폐 운동과 인민해방운동을 하는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에 여러 차례 거액을 지원한 바 있다.
6. **W.C.C.는 개종전도금지주의를 주장한다 –** 정교회와 로마카톨릭교회의 형식적 명목상의 신자들에게 개신교 구원론을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정 종교가 세워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이며 교회를 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7. **W.C.C.는 로마카톨릭주의를 주장한다 –** 개신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였고 종교개혁자 마틴루터와 존칼빈을 파문하고 이단의 괴수목록에 명명하였다. 그리고 교황은 무오하다는 것이 WCC의 주장이다.
8. **W.C.C.는 가시적교회일치주의를 주장한다 –** 교회의 본질을 외형적 일치에서 찾는다. 개신교회의 교회론을 저버리고 가시적 일치를 본질로 본다.
9. **W.C.C.는 신앙고백형식주의를 주장한다 –** 하나님의 말씀선포 자리에 성만찬을 대체한다. 교리는 갈라지게 하지만 봉사는 하나 되게 한다고 하면서 신앙과 제도와 신학이 다른 여러 형태의 교회들을 일치시키려고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을 포기하였다.
10. **W.C.C.는 성경불신주의를 주장한다 –**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아니며,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더욱이 오류가 없는 말씀도 아니다 라고 주장 한다.

따라서 W.C.C.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인 사도적 사명을 포기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므로 선교 및 전도를 왜곡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기독교 근간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반 그리스도적 사명을 받은 단체라고 규명한다. 그러므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한국교회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되겠기에 한국기독교 WCC반대대책위원회는 이와 같이 한국교회 앞에 성명하나이다.

2012. 4. 1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W.C.C.반대대책위원회 위원 일동

정동진그리스도의교회 희망원을 찾아서



원장 **최낙현** 목사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복지에 대한 꿈을 가졌던 코 흘리기 소년!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다. 그가 노인전문요양원 정동진희망원 원장 최낙현 목사다.

산성그리스도의교회 담임목사!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동진희망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정동진희망원을 운영하는 최낙현 목사(50)는 충북 충주가 고향이며, 이미 어린시설부터 어렵고 불쌍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에 대해 꿈을 안고 살았다고 한다. 최 목사는 부인 박금순(50)사모와 같은 신학교 커플로 만나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고 목양일념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최낙현 목사를 만나 본다.

◆ 복지보다 교회가 먼저 시작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 어린나이에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개념을 갖고 어려운 노인 분들과 더불어 생활하겠다는 마음은 한 번도 잊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해 오면서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권유로 성악공부를 하던 중 피아노 문제로 공부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때 동양그리스도의교회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회는 생각해 본 일이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 사회봉사도 하고, 영원구원을 위하고, 신학은 종합예술이요, 또한 사회복지와,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영원도 구원하고, 그래서 신학은 인생의 종합예술이라는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기독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서울 상도동 대방그리스도의교회의 전도사, 두 번째는 전남 해남 은혜그리스도의교회의 부교역자, 세 번째 충주그리스도의교회를 부교역자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5년 전 폐광된 산골마을에 교회가 없으니 이곳에 들어와 개척 하라는 전주섭 목사(은퇴목사)님의 권유를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타기도원 이은종 원장님이 개척자금을 후원해 주셔서 폐광촌 간사를 매입,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교회가 저 아랫마을에 있습니다.

◆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 제가 1996년도에 이곳에 왔을 때는 노인 두 분과 아이들이 20여명 있었습니다. 첩첩산골마을 폐광촌에 들어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회가 100%베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비가 지원되는 곳도 없었습니다. 또한 매년 명절 때가 되면 떡을 해서 양말과 속옷 등을 들고 독고노인들을 찾아뵙고 선물과 함께 드리고 옵니다. 또한 김장철이 되면 김장을 해서 독고노인들을 찾아가 드리고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산골마을은 100% 섬김의 목회입니다. 그러다보니 목회자는 가장 힘든 일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제가 1998년도에 본 교단협의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지난 17년 동안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해 오면서 안타까운 것은 전도가 안 되는 것은 헌금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만원자리 신권을 드려서 그 돈으로 헌금하시도록 합니다. 현재 섬김을 통해서 육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산성그리스도의교회는 숫한 어려움을 딛고 2005년도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 소재에 교회본당 150석을 갖춘 성전이 완공되어 입당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개척을 시작했을 때는 50여명이 출석을 했지만 폐광촌을 떠나면서 지금은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만 계시는데 1반부터 4반까지 약 100가구가 살고 있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10여명이 넘었으며, 현재 나이 많은 20여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 노인전문요양시설 정동진희망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동진희망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정동진희망원은 2009년도에 완공하여 개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1층에 있는 사택과 교육관을 개조하여 요양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은 2011년 3월1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노인 분들 중에는 교회 1층 노인요영공동생활가정 시설에 6명이 입소해 계시고, 노인전문요양시설에 19명이 입소해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조리사, 위생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등 18명의 직원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랬지만 요양시설을 지을 때도 온갖 협박과 욕설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교회와 요양시설이 초교파적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를 기도하면서 극복해 온 것입니다. 정동진역과 바다가 5분 거리에 있고, 또한 교회의 목표가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중심을 두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시골이라는 한계점이 있어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한때 제가 12년 동안 타 시설에서 운영위원을 맡아 일하면서 경험을 쌓았던 것이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불교인도 많지만 얼마 못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저로서는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면 고아와 독고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사회복지 시설로서 장애인들과 같이 쓰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 사실 어렸을 적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 사실 어렸을 때 그 꿈이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산성그리스도의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는가, 라는 목표 속에서 지금까지 완주해 왔습니다.

목표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목표를 정하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요양시설을 통해서 10여 곳 이상을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100곳 200곳을 구제하고 선교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희망원의 목표입니다.

현재 은행에서 대출받은 7억을 갚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일로 때론 교회가 경매 위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산성그리스도의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앞으로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은 장애라고 볼 수 없고, 감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세우신 뜻을 또 저를 이곳에 보내신 그 뜻이 이루어진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현제 아이들이 3남매인데 이강평 목사님의 지시로 100% 장학금 혜택을 받아 서울기독대학에 들어가 첫째도 신학을 해서 마쳤고, 둘째도 신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에 제학 중이며, 셋째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누군가 복지시설을 요양원을 이끌어 가려면 가까이서 빨리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막내는 사이버대학을 통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 전하는 따뜻한 손길"

굿피플, 말라위에 신발.의류.희망 등 발송식 가져

국제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창명)이 4월 26일 목요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아프리카 말라위 구호 물품 발송식'을 가졌다.

굿피플 송철종 부회장 등 굿피플 임회원과 ㈜스코노코리아(대표 백귀열) 관계자,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메마른 땅 아프리카 말라위를 향해 신발, 의류, 희망등/랜턴 등의 구호 물품을 발송하였다.



지난 2011년 11월 희망TV SBS에서 진행한 '희망의 운동화 보내기' 이벤트와 '희망등 보내기' 이벤트를 통해 후원 받은 ㈜스코노코리아 신발 8,500족과 희망등 1,640개를 비롯해 유니클로가 후원한 티셔츠 3,000벌과 BYC가 후원한 속옷 5,000벌이 함께 전달된다.

이번에 전달되는 물품은 부산항을 출발하여 약 55일 후 말라위 블랜타이어에 도착, 굿피플 말라위 지부를 통해 난체푸, 리퀴찜베, 마칸디, 나미핑고 총 4개 지역의 빈곤 주민 8,000여명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말라위는 전 세계 176개국 중 10번째 최빈민국으로 말라위의 13세 이하 어린이 중 태어나 자신의 신발을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아이들이 50%, 현재 신발이 없는 아이들이 80%다. 만성적인 빈곤과 기아, 비위생적인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각종 질병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굿피플 김창명 회장은"말라위의 아이들이 속옷 조차 입지 않은 상태로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며 "굿피플은 말라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의 빈곤 이웃들을 위해 보건의료, 교육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 동안 말라위 마칸디 지역에서 1:1 해외아동결연을 활발히 펼쳐오며 말라위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전해온 굿피플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아동결연과 지역개발을 통해 말라위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공덕교회

2012년 표어 :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행 6:7절)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김민호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11시 오후2시
삼일밤 오후8시 금요기도회 저녁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피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담임 모상련 목사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 일	예 배	시 간	장 소
주 일	낮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저녁예배	오후 7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금요예배	저녁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청년부예배	오후 5시	5층 영산강홀
주 일	대학부예배	오후 5시	5층 두란노홀
주 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2층 새롬방
주 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3회 오후 2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3층 아동센터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중등부	오전 9시	2층 영산강홀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영어예배	오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곽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 예 배 안 내 >
주일오전 : 오전 11:00
주일오후 : 오후 2:00
수 요 일 : 오후 7:30
새벽기도 : 오전 6:0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인천 연수구 기연 부활절연합예배

2012년 부활과 회복

인천광역시 연수구기독교연합회(대회장 김성하 목사)는 지난 8일 오후 2시30분 가천의과대학교 체육관에서 2012년 부활과 회복이란 주제로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렸다.

대회장 김성하 목사(소망교회)는 "대회사를 통해 2012년 부활절을 맞아 연수구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렸다. 그는 또 죽음은 모든 존재의 끝으로 여겨져 왔으며, 그러기에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슬퍼하던 자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졌고, 두려워하던 자들이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절망하던 자들이 생기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잘못된 인생의 방향으로 가던 발걸음이 전화되었다면서, 부활절연합예배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어나 기쁨과 담대함, 놀라운 기적들,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망들이 불꽃처럼 타올라 이 땅의 황무함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했다.

이날 준비위원장 변충진 목사(늘푸른교회)의 인도로 부활절 연합예배가 진행되었으며, 서기 정일량 목사(향기로운교회)가 기도를, 부회장 이웅세 목사(세계로교회)가 고린전서 15:57~58절을 봉독하고, 이용효 목사(인애교회)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회계 윤진호 목사(송축순복음교회)가 봉헌기도를, 고남석 연수구청장, 국회의원 황우여 장로, 증경회장 장원기 목사(흥광교회) 등이 축사를 했다.

아울러 1.나라의 발전과 위정자들을 위해 부회장 이주후 목사(인천반석교회), 2.사회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이수웅 목사(가나안교회), 3.한국교회 성장을 위해 부회장 진유신 목사(순복음중앙교회), 4.연수구 지역발전과 기관장들을 위해 안승주 목사(초원교회), 5.연수구기독교연합회와 임원들을 위해 부회장 이호근 목사(중부성결교회) 등이 각각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이어 대회총무 조은호 목사(송도남부교회)가 인사 및 광고를 명예대회장 김양규 목사(주안의교회)축도로 부활절연합예배를 마쳤다.

인기총부활절연합예배 1만 명 성도 감동적인함성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이건영 목사, 인천제2교회)가 주최한 2012 부활절연합예배가 8일 새벽 5시30분 인천삼산월드실내체육관에서 1만 여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 속에 드려졌다.

인천교회음악협의회와 인천제2교회가 공동으로 인도한 경배와 찬양에 이어 김기복 목사(공동회장, 인천침례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총회장 이건영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먼저 인천광역시 3,000여개 교회와 100만 성도 그리고 280만 시민에게 죄와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했다.

이 목사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은둔의 동방 땅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영생의 등불을 들고 제물포 항에 들어온 것이 1885년 부활절 아침이기에 인천의 시민들과 성도들에게 부활절은 더 뜻 깊다."며 "127년 전 부활절 아침에 우리민족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동토의 땅 저 북녘에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인천지역 교회들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하나로 연합하고 단결하여,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소망을 증거하여 살기 좋은 인천, 성령으로 성시화 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가는 계기가 되어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예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밝혔다.

대표기도를 맡은 최병현 목사(공동회장, 낙원제일교회)는 인천의 3,000여 교회가 힘을 모아 예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 인천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인천이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기원했다.

인천기독교장로회총연합회 총회장 최조길 장로(공동회장, 내리교회)의 성경봉독(사도행전 5:29~32)과 부활의영광을찬미하는인천연합성가대의 찬양에 이어 이날 황관하 목사(공동회장, 동암제일교회), 손신철 목사(공동회장 , 인천제일교회), 류우열 목사(공동회장, 복된교회), 장치호 목사(부평구연합회 회장, 횃불교회), 강기선 목사(계양구연합회 회장, 인천제일교회)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세계경제와 인천 성시화를 위해', '인천지역 이단사이비 척결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했다.

최광영 목사(증경총회장, 성덕교회)가 남북공동기도문을 낭독했다. 이어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의 축사, 최성규 목사(증경총회장, 인천순복음교회)와 하귀호 목사(증경총회장, 만민교회)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서 길조 목사(공동회장, 고신대학교회)의 사회로 증경총회장 임헌승 목사, 조춘혁 목사, 박삼열 목사, 장자옥 목사가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무총장 신덕수 목사(한일소망교회)의 광고에이어 참석자들은 박무평 목사(정책위원장, 풀린자들의교회)의 선창으로 인천의 3000여교회 100만 성도가 사랑광 리치로 연합해 기독교의 발상지 인천을 성시화하고, 이단사이비집단을 척결한다는 구호를 제창하고, 장희열 목사(증경총회장, 순복음 부평교회)의 축도로 연합예배를 마쳤다.

대구 샘물교회, 기도원 설립예배 및 부흥성회 드려

"노년에도 식을 줄 모르는 복음 열정"

68세의 노년에도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진 곽태영 목사가 샘물교회 및 기도원을 개척하여 지난 10일 설립 예배를 드렸다.

그는 일찍이 곽(현풍 곽)씨 문중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한 목사이다. 노년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야간에는 다니기도 쉽지 않은 몸을 가졌지만 그의 사명에 대한 열정만은 결코 청년 부럽지 않다.

대구 수성구 범물동 1321-2번지 범물 주민 센터 앞에 지하 70여 평을 얻어 샘물 교회(기도원)을 개척하여 많은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곽태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립예배는 박석만 목사의 기도, 김정성 목사의 "주님이 세운 교회"(마15:16-19)라는 제목의 설교, 신순종 목사의 권면, 김완섭 목사와 최원수 장로의 축사, 성경국 목사의 봉헌기도, 김종배 목사의 축도, 곽은혜 전도사 외 1명의 찬양율동이 있었다.

목회자일 뿐 아니라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상임회장을 맡고 있으며, 오랜 세월 부흥사로 활동한 그는 이날 설립예배 후 밤부터는 설립기념 특별 성회가 금요일 밤까지 찬양과 키보드 파워포인트를 능숙하게 하며 부흥회를 인도하는 1인3역의 부흥사 박길영 목사를 강사로 초청 성회를 가졌다. 한편 많은 선후배 동역자와 성도들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영적각성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원을 설립한 곽태영 목사를 축하했다.

사무국장 곽영민 기자
kdp0920@naver.com

한기총, 2012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성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지난 8일 주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승동교회에서 2000여 명의 교계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찬식을 갖고, 직전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사람은 두 번 산다"는 제하의 설교를 했다.

길 목사는 이날"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 한다"며"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병들고 잠자고 죽은 자를 깨우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릴 깨우시고 일으키신다"면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오라' 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국교회와 내 심령과 가정이 살 수 있다"고 전했다.



수기총 부활절연합예배 5000명 부활 찬미

수원시부활절연합예배는 8일 새벽 5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50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복음중의 복음"라는 주제로 설교에는 김성길 목사(시은소교회)가 맡았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기로운교회
HGIROUN CHURCHa
표어 :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요16:16)



담임 정일량 목사

담임목사 정일량, 유성은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09:30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8:00
영락원예배	오후 3:00	영락원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목요치유예배	오후 8:00
청소년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학교예배	오전11:00	중보기도모임	월 오후 10:00

대/한/예/수/교/장/로/회 향기로운교회
☎032-814-7720 / 팩스 032-714-3131 010-9450-7591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향기로운빌딩 9층 홈페이지 http://hgioun.onmam.com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목포만나교회
웨스트민스터 목포신학교
201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음성이 아니면 당신이 만나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서 헤메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기다리는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모상련 박사
연구원장



조광표 박사
목포신학교 학장

1. 모집과정

과정	구분	수업연한	전형자격	비고
연구원	목하신학석사(M.Div)	3년	4년제 대학교나 신학과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신학 4년 이수자는 2학년에 편입	주간:개점학기(여름,겨울) 야간:월,화,목,금
	목회학석사(M.A)	2년	4년제 신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자	
신학원	신학사(B.Th)	4년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여교역자(B.Div)	3년	고졸 졸업예정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평신교교육과	2년	학력제한 없음, 졸업 후 신학과 입학자격 부여, 고졸자인 경우는 신학과 2학년에 편입	
	사회복지과	2년	고졸자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2급 자격 취득

2. 전형일정
원서접수 : 연중 계속
원서교부 : 본교 교무과 061)242-1617

3. 제출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사진 4매

4. 특전
1) 연구원 졸업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2) 신학과 졸업생은 연구원 과정에 진학
3) 사회복지과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및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케어복지사(민간) 자격 취득

웨스트민스터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 조광표 박사(D.D.) 연구원 원장 : 모상련 박사(Th.D)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061)242-1617
목포신학교 순천캠퍼스
순천시 동외동 191-2번지 / 전화 061)744-7004, H.P 010-9049-3731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전 화 : 061)274-6461
학장실 : 061)242-1617
자 택 : 061)274-1801
핸드폰 : 011-631-1977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이중
(본지, 상임이사)

장로 : 신호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설교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역사(6)

제4부 보배로운 그릇(2)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금 같은 귀한 그릇이 되길 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방법으로"자기를 깨끗하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흙이나 나무 등 불탈 것들, 즉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보석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 세상의 정욕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요한일서 2장16~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보석그릇이 되어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딤후 2:15~19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임이니라.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 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세상의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보배로운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미혹하게 하고 비 진리로 말하는 것에서 떠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금과 은 같은 불타지지 않는 귀한 보석의 그릇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릇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보석의 그릇이 되어 귀히 여김을 받아,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로 불려 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9절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기둥과 같이 여김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보석으로 귀히 여기는 그릇,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같이 귀히 여기는 자들 중 야고보가 헤롯에게 사도로서는 최초로 순교 당했고, 베드로가 보석그릇으로 쓰임 받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뒤이어 사도 요한이 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완성시킴으로 끝을 맺습니다. 바로 이들이 신약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석그릇으로 세워진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석그릇 안에 담긴 예수

지금까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석그릇으로 쓰임 받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부터는 나의 '보배로운 그릇 됨'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기둥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보석그릇으로 삼으셨으면, 내게도 똑같이 보석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면 내게도 주님이 되심을 믿으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히 11:1)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41절의 베드로는 더 이상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약 3,000명의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습니다. 단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석그릇으로 성령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배로운 목격에 이은 시련과 연단, 시련을 통해 얻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되고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여,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의 보석그릇이 되었음을 밝히 드러냅니다.

나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보석그릇인 나를 통해서 재림예수를 증거하고 회개케 하여 진리의 사람으로 되게 하십니다. 진리로 돌이켜 진리이신 재림하실 신랑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6절에 모태부터 앉은뱅이인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에게 "은과 금(세상의 보석)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하나님의 보석이며 영광의 부활 승천하신 이)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하고 선포하니 그가 치유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보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석으로 존귀케 되신 예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보석으로 존귀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흡수되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 3:27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세례)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가 주체로 계시고 자신이 예수 안으로 흡수(예수 안에서 자신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연합)되어 예수 옷에 속한 자가 되는 것, 예수의 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9장40절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비다는 주의 제자이며 귀네(히브리어, 과부)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의지하며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일어나라."고 명하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보석인 예수님이 담겨져서 보석그릇이 되었음'을 다비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수한이 더 연장되었듯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석그릇으로서 예수를 남편으로 삼아 하늘나라의 조에를 누리는 다비다에게 영생의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보석에 마음을 두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하나님의 보석에 마음을 두느냐, 우리에겐 다만 이것이 문제입니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대한노회장
본지 상임이사

예수님의 최후 10일간의 행적 부활 그 이후

(예수님의 삼일 밤들과 삼일 낮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성경 출판사역과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 전파를 위하여 동참하셔서 출판 후원금과 기도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금식과 특별기도회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사순절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않다.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에 기록 된 것은 철저히 행하되 기록 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은혜스럽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하겠다. 현대교회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아닌 날을 기념하고 있다. 사탄들이 모여서 제정하여 지키게 한것을 1600여년간 지켜왔다.

현대교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라는 근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라고 속고 있으며 또한 속이고 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10일간의 행하심과 부활 그 이후의 진리로 지각이 열려서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므로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한다. 또한 거짓 영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10일간의 행하심과 부활 그 이후

1)1월 8일(목),1월7일 일몰 후 1월 8일 일몰 전, 유월절 엿새 전(요12:1), 나사로 집 만찬(요12:1~2, 요12:1~8절), 2)1월 9일(금) 8일 일몰 후 9일 일몰 전, 유월절 닷새 전(요12:12), 예루살렘 입성하심(요12:12 마21:1~11, 막11:1~10, 눅19:28~44, 요12:12~19), 3)1월10일(토), 9일 일몰 후 10일 일몰 전, 유월절 나흘 전(막11:12), 계명안식일, 성전 청결(막11:15, 마21:12~16, 막 11:15~18, 눅 19:45~47, 요12:13~16),

4)1월11일(주일) 10일 일몰 후(11일 일몰 전), 유월절 나흘 전(막11:20, 마21:20~ 25:46, 막11:20~ 13:37, 눅20:1~ 21:38, 요12:37~50), 5)1월 12일(월),11일 일몰 후, 13일 일몰 전, 유월절 이틀 전(막14:1), 시몬 집 만찬(막14:3), (마26:1~13, 막14:3~9, 눅7:36~50),

6)1월13일(화) 12일 일몰 후, 13일 일몰 전, 유월절 하루 전 막14:12,(마26:17~19, 막14:12~16, 눅22:7~13), 7)1월14일(수) 13일 일몰 후, 14일 일몰 전, 유월절 막15:42), 유월절 예비일 양 잡는 날, 최후의 만찬 막14:17,(마26:20~ 27:66막14:12~ 15:47 눅22:17~ 23:55 요13:34~19:42),

8) 1월15일(목), 14일 일몰 후, 15일 일몰 전, 무교절1 (출12:15,18), 무교절 절기안식일, 절기안식일 쉰 날(눅23:54), 밤1,낮1 장사 되셨는가(고전15:4), 9) 1월16일(금) 15일 일몰 후, 16일 일몰 전, 무교절2, 향료, 향품 준비한날(막16:1), 밤2, 낮 2, 첫째 날 일일 하루,

10) 1월17일(토), 16일 일몰 후, 17일 일몰 전, 무교절3, 계명안식일, 계명을 따라 쉰 날(눅23:56하), 밤3, 낮3, 둘째 날 이일 이틀, 11) 부활이후 18일(주일), 17일 일몰 후 18일 일몰 전, 무교절 4, 초실절, JX의 부활(막16:9), 셋째 날, 삼일 사흘, 1월 19일(월) 18일 일몰 후, 19일 일몰 전, 무교절 5, 1월20일(화) 20일 일몰 후, 21일 일몰 전, 무교절 6, 1월21일(수), 21일 일몰 후, 22일 일몰 전, 무교절 7, 출12:16, 절기안식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주간에는 절기의 안식일과 계명의 안식일로 안식일이 두 번 있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을 개역성경에는 그 주의 첫날 일찍이 부활하신 것을 아침이라는 단어를 첨가하였다.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도유사건은 공생애의 마지막 때 요한은 유월절 엿새 전에 마태와 마가는 유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에서 행한 것으로 기록하였고, 행하신 것을 기록하였다. 누가는 공생애기간에 바리새인의 초청받은 날에 와서 죄인인 한 여인이 기름부음이 있었다. 예수님께 도유사건은 총 3번이었다. *성전청결사건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공생애의 마지막 때에 행하심으로 기록하고 요한은 요한복음의 시작부분에 기록하였다.

예수님의 최후 10일간의 행적

1월 8일(목) 유월절 엿새 전(요12:1), 7일(수) 오후 6시 베다니 나사로 집 만찬(요12:1~8절), 마리아 향유 부음(요12:1~8절), 나사로의 누이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예수님의 발 앞에 부음),"8일 목요일"1월 9일(금) 유월절 닷새 전(요12:12), 8일(목)에서 9일(금), 오전 6시, 그 다음날 요12:12,On the next day 예루살렘에 입성하심(마21:1~11, 막11:1~10, 눅19:28~44, 요12:12~19), 날이 저물매 예루살렘에서 나오심(막11:11), 1월10일(토) 유월절 나흘 전(막11:12), 9일(금)오후 6시, 10일(토) 오전6시, 이튿 날 막11:12,on the morrow 베다니에서 나오심 막11:12, 무화과 거주, 성전 청결 마21:12~17, 막11:15~18, 눅19:45~47, 요2:13~16, 날이 저물매 도시에서 나가심 막11:19,

1월11일(주일) 유월절 사흘 전 막11:20, 10일(토), 오후 6시, 11일(주일) 오전6시, 아침에 지나가실 때 막11:20, 무화과마름 마21:20~22, 막11:20~26절, 성전에서 가르치심 마21:20~25:46, 막11:20~13:37, 눅20:1~21:38, 요12:37~50, 기도 막11:23,24, 용서 막11:25-26, 권위 막11:막11:23-27, 침례 막11:30절,

1월12일(월), 유월절 이틀 전 막14:1, 11일 주일 오후 6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 마26:2-5, 막14:1, 눅22:1-2, 문둥병자 시몬의 집 만찬 마26:2, 막14:3, 한 여인의 향유 부음, 마26:1-13, 막14:3-9, 이름 없는 여인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예수님의 머리에 부음), 12일(월), 1월13일(화), 유월절 하루 전 막14:12, 12일(월), 13일(화) 오전 6시, 유월절 예비 유월절 양 준비, 마26:17-19, 막14:12-16, 눅22:7-13, 큰 다락방 최후의 만찬, 막14:15, a lage room αναγαιον 다락방 성령강림 행1:13, 12:12 upper room υπερωον 성읍에 들어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a man 마14:12-17, 1월14일(수) 유월절(안식일 전날인 예비일) 마15:42, 13일(화), 오후 6시, 고난 받으시기 전, 유월절 양을 잡수심 눅22:15, 고전 11:23, 최후의 만찬 마26:20-35, 막14:18-25, 눅22:40-46, 예수님 체포 요18:12, 대 성직자에게 끌려가심 요18:13, 종교 재판(3번), 1. 안나스 심문 요18:13-14, 2. 가야바 심문 마26:57-68, 3. 공회 심문 막15:1, 14일(수) 오전 6시,



원장 김수정 교수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곽순종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사랑.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설/장기 요양원 정동진 희망원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천신학교수
⊙ 서울 칼로스신학연구원 교수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MTR-school 성경 연구원
구약(벤아세르 MT)과 신약(TR원문)에
의한 강의로 사도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인 교육

● 계시록원전
● 히브리어문법
● 헬라어문법(전 준덕 교수)
알기 쉬운 52주 헬라어 문법 저자 강의
● 영어문법
● 계시록



원장 김수정 교수
(본지 운영이사)

● 일시: 매주 (화) 오전 9시부터 강의
● 장소: 송파구 오금동 118-20(2층)
● 문의: 02-409-3601, 070-4100-3601
● 후원: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바른성경선교회
한빛교회
매주 수요일 오전10시~오후4시까지 특별세미나



강사 손기태 신학박사
(본지 고문)

• 강의내용
(1) 하나님의 구속사로 본 일곱 절기(레23)
(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표징이 일곱 절기 안에 있다
(3) 노아의 때를 알면 인자의 때를 안다.(마 24:37)
(4)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7가지 동질성(마 2:1-12)
• 대상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 광고후원 :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 강사의 저서 : 20 여종 특별할인

♣ 참석자 전원에게「언약의 무리」저서 1권씩 기증. 마라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
(경춘 전철 금곡역 차로 5분 거리)
전화 031)592-7079, 594-3733(Fax 견용)

글로벌선진학교 미국 아비리그 입학생 증가로 주목

국제화 대안학교로 음성캠퍼스 이어 문경캠퍼스로 확대



국제화 대안학교로 널리 알려진 글로벌선진학교(이사장 남진석 목사, 이하 GVCS)가 최근 5년 동안 졸업생들의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으로의 입학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VCS의 졸업생들은 라이스대, 브라운대, 코넬대 등의 대학과 버클리대, UCLA, 미시건주립대, 일리노이주립대, 버지니아주립대 등 최고수준의 주립대학에 학생들을 입학 시켜왔으며 학교인가 이후에는 서울대 연세대를 비롯한 국내 유수 대학에도 학생들을 진학시키고 있다.

올해 GSCS 졸업생의 경우에는 미국의 코넬대, UCLA, 죠지아공대, 와싱톤대, 위스컨신대, 텍사스 어스틴대, 미시건대, 뉴욕대, 펜실베니아주립대 등과 유럽명문대에 속하는 런던대, 웸블던대, 헤이그대, 레이든대 그리고 호주의 퀸즈랜드 대학 등에서 입학허가를 받았다. 아시아권 대학으로는 홍콩대학과 일본APU에서 입학허가를 받았다. 특히 국내대학으로는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총신대, 침신대 등에서 입학허가를 받게 됐다.

GVCS는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영어사용수업의 확대, SAT, TOEFL 등 철저한 공인 시험 준비, 프로젝트 과제 수행 및 토론식 수업,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각종대회수상, 지역학생들을 위한 토용영어 학교 봉사, 격오지 및 해외 선교지 봉사를 위주로 하는 선교 인턴십 활동, 태권도 3단 취득 및 다양한 스포츠 클럽활동에 따른 집중력 향상 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학기 초마다 실시하는 CPE(깨끗한 학교, 순결한 학교, 실력 있는 학교) 캠페인과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강한 동기부여가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사장 남진석 목사는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음성캠퍼스와 2011년 3월에 개교하여 경북 교육청에 인가 신청 중인 문경캠퍼스는 괄목할만한 교육결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수업료없는 학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거룩한 비전을 갖고 미래의 인재가 되겠다는 꿈만 있다면 입학해 공부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진석 목사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매월 1만원씩 크리스천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선교 헌금을 할 수 있는 10만 후원자 모집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매년 2만 명의 후원자를 발굴하여 앞으로 2017년에는 수업료 없는 학교를 만들어 아시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기독교 전문 대안학교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GVCS 음성 캠퍼스는 총부지 약 6,000평에 달하며, 학교운동장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제외하고는 학교 채플, 세미나실, 음악연습실, 실내체육관, 태권도 전문체육관, 영어집중교육 강의실, 학생휴게실, 컴퓨터 랩실, 도서관, 체력 단련실 등 현대식 시설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학생 기숙사 역시 4인 1실에 실내 샤워와 화장실을 갖춘 현대식 시설을 자랑한다.

문경캠퍼스는 총부지 약 25,000평에 이른다. 이는 음성 캠퍼스의 약점을 보완한 동일한 시설과 더불어 스포츠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규격의 축구장과 야구장을 세울 예정이다. 또한 장거리 거주 부모들이 학생과 함께 숙식하도록 특급 호텔식 게스트하우스를 갖추고 있으며, 좀 더 질 높은 교육환경을 구비하기 위해 교회, 기업인, 개인 후원자 등의 뜻을 기릴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보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VCS는 최근 부산, 광주, 서울 및 수도권 5개 지역에서 GVCS 대안학교운영 현황과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교육박람회를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기독인뉴스 김성수 국장

한국찬송가위원회 7개 교단, 찬송가 다시제작



'21세기 찬송가' 가사와 음정 면에서 문제점 들어나, 일부 곡들 저작권 소송에 걸려있어 다시 제작하기로 결의돼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충남 도청으로부터 법인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찬송가위원회가 찬송가를 다시 제작하기로 결의해 관심을 모은다.

애매한 태도 보였던 예장통합, 다시 찬송가위원회에 참여

한국찬송가위원회는 26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열고 찬송가를 다시 제작하기로 결의했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21세기 찬송가'가 가사와 음정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데다, 찬송가 곡들이 저작권 소송에 걸려있다는 이유에서다.

침례교단 홍성식 목사는"21세기 찬송가의 판권과 저작권이 법인 찬송가공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찬송가를 회수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찬송가를 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찬송가위원회는 올해 교단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 교단적 결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찬송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단은 감리교, 기장, 기성, 기하성, 예장고신, 예장통합, 침례교 등 모두 7개 교단이다.

예장통합은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1년간 회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날 총회에는 참석, 다시 참여하기로 했다.

보혈의 능력

히 9:22"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에서 피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피는 생명과 관계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살인을 금하고 있다(신 5:17).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레 3:17). 구약시대는 소와 양의 피로 속죄의 희생을 드렸다. 예수님은 최후만찬 석에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막 14:24)고 말씀하셨다. 구약시대에 번제단에서 희생이 된 무수한 피는 십자가상에서 희생이 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이요, 영원한 언약이 된다(히 9:20, 고전 11:25).

1. 사죄의 능력(구속)

벧전 1:18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히 9:12) (엡 1:7) 그의 피로.

2. 칭의의 능력

〈롬 5:9〉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딛 3:7〉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롬 3:24).

3. 성결의 능력

〈요일 1:7〉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10:29, 13:12). 〈히 9:14〉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 9:22〉.

4. 성소에 들어갈 담력

〈히 11:19〉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엡 2:13〉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고 하셨다.

5. 화목케 하는 능력

〈골 1: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엡 2:14~17).

6. 승리의 능력

〈계 12:11〉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 · · · · · · 〈계 1:5하〉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7. 영생 기업의 능력

〈요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에수와 일체)(56)



손기태 목사

신학박사

당신은 누구와 사는가? (롬 7:1-13절)

"당신의 친구를 보이라 그리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리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같이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다. 롬 1-5장에 이르도록 진정한 구원을 진술한 바울은 6-8장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다. 구원받은 축복은 자유이다. 6장에서는 죄에서 자유, 7장에서는 율법에서의 자유를, 8장에서는 사망에서의 자유를 말씀한다. 한 여인이 어떤 남편과 사느냐 거기에 행불행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율법이란 남편이 있다.

율법이란 남편은 어떤 남편인가? 즉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7:12)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다섯 가지이다.

(1) 죄를 깨닫게 함 (3:20)
(2) 범죄를 더하게 함 (5:20)
(3) 죄를 알게 함 (7:7)
(4) 사망에 이르도록 함 (7:9-11)
(5) 죄를 드러냄 (7:16)

그러므로 율법이란 남편과 살면 무섭고 불안하고 늘 죄인으로 고통당하며 죽게 된다. 율법이란 남편과 사는 동안은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

2. 예수 그리스도란 남편이 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케 하시므로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기 때문이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얻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를 쉬게 하시며 (마11:28), 그를 섬기는 자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다.(고후1:30)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남편 예수 안에 행복과 위대한 축복, 구원이 있다는 것이요, 나아가 남편이신 예수께서 부정한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 많으신 남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지요 방패요 요새요 빛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다.

편집부 제공







"성경으로 본 건강학" 정직과 절제의 건강학(38)



황성주 박사

"내가 두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잠 30 : 7-8)

"눈 딱 감고 받자니 양심에 가책이 되고 나만 안 받자니 아래위로 눈치가 보이고…" 돈 봉투를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통을 받는 한 세무공무원의 이야기는 이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흔해 빠진 소재에 불과하다. 그래도 이분의 경우는 "못 받아서 안달"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양심적인 편에 속한다. 결국 그는 매사에 의욕을 잃고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직장인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일을 처리할 때"라고 한다. 즐겁게 하는 일은 건강에 유익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만 마지못해 하는 일이 나쁜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이론이 아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주어졌을 때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청렴결백으로 칭송을 받던 관리가 거액의 뇌물로 한순간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와 "번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쉽게 번 돈은 헤프게 쓰게 마련이다. 과소비 자체를 문제 삼기 이전에 돈의 출처를 따져보아야 한다.

정직하게 번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없다. 부정직하게 번 돈으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쾌락을 사는 일에 쓰게 되고 여기에 한번 맛을 들이면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 이것이 돈과 쾌락, 과소비와 부정부패의 함수관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숨겨진 스트레스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각종 쾌락의 수단으로 인해 양심을 찌르는 스트레스가 잠시 잊혀질 뿐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기능이 없어질 수는 없다.

"정직"이라는 도덕적 자유와 "절제"라고 하는 경제적 자유만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보장해주는 정신건강의 파수꾼이다.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정직한 삶과 검소한 삶을 생활화해야 한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한다.

"나는 캘리포니아의 한 도시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점점 타락해가고 있다."

얼른 생각하면 타락의 도시에서 그만큼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 대견할 수도 있다.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목회의 성공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무기력함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교회의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세상이라는 음식 속에 녹아들어 가지 않고 소금덩어리로만 존재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정치와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낭비와 과소비, 무책임과 탐욕과 이기주의, 상실되어가는 근로의욕과 한탕주의 등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는 외침 속에서 크리스천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의해 변질되어 가는 오늘의 세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시점에서 자신의 생애를 걸고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어떠한 행사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원합니다" "자족하기 원합니다"라는 처절한 기도와 "세상의 소금으로써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뼈를 깎는 각성이 무기력한 교회를 살리고 병든 사회를 구하는 유일한 처방이 아닐는지.

칼럼

진달래는 떨어 졌나

4월의 꽃 진달래는 모든 꽃에 우선하여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진달래는 4월 초순에 만개한다. 북한은 진달래를 국화로 지정하고 붉은색으로 치장하고 있다. 진달래 예찬의 시를 보면

"누나야 머~언 산에 빨~간 진달래 떨어진다네

누나야 가자구나 빨~간 진달래 얼어붙는 겨울이 오기 전에"

시의 내용은 북한을 묘사한 것으로 남쪽의 전쟁준비가 되기 전에 빨리 가야 한다는 빨치산 정신을 말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4.13일 광명성 3호라는 로켓 미사일을 발사하여 세계에 힘을 과시하고자 했다. 발사한 미사일은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 서해상에 추락하여 산탄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G8 국가들은 북한로켓 미사일 발사를 전략차원에서 긴급회의를 갖는 등 비상한 관심을 가졌으며, 식량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나? 국민들의 관심은 놀라울 정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매스컴들도 남의 나라 일처럼 감정 없는 뉴스를 전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일인데도 위기의식은 물론 전쟁심리가 전혀 없는 안이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날 천안암 사건과 연평도 사건으로 많은 젊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우리 군은 대응사격 한번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끄러움 뿐 이었다.

금번 로켓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통보 한번 하지 못하고 감시만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면 무엇 하겠는가! 반대로 우리 측에서 북쪽으로 미사일을 발사 했다면 북은 즉각 대응은 물론 전쟁 돌입에 들어갔을 것이다. 관심 계층들은 우리 국방이 완전한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다. 왜 우리의 국방은 대응태세와 국방관계자 들의 응징 자세가 국민들에게 비쳐지지 않는 것인지, 국민들의 사기진작에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국내 좌파 종북 세력들은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너무도 조용했다. 그토록 각종 명목을 내세워 규탄결의와 정책비난, 촛불집회 등 사회혼란을 해오던 집단들이 아니었던가! 앞으로 북한의 진로는 이것으로 끝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재도전을 하기 위해 3,000km에 육박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군 사열행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앞으로 북한이 재시도 할 경우 즉각 응사하여 분쇄 시킨다는 강력한 의지로 국방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한다. 힘은 힘으로 겨루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힘이 약했을 때 6.25의 참상을 기억하자. 당시 북한공산당은 우리의 우익 인사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깊은 우물에 산채로 거꾸로 쳐 넣어 생수장 살해한 악질 괴뢰 도당들에게 철저한 응징을 해야만 한다.

사회혼란을 쉬지 않고 조장하고 있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 정계에 입문하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음을 철저히 색출하여 처치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성장을 위해서는 주변에 산재해 있는 종북 좌파라는 잡초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국방과 치안은 국민의 안정을 위해 있는 것이다. 국가통치자의 강력한 정치력과 국방과 치안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작은 틈새는 장벽을 무너트려 물바다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철저한 국민 결속으로 요동치는 북한의 불장난을 철저히 파괴 시키자.



서영웅 목사
퓨리탄장로교회
본지 상임이사

길자연 목사 칼럼 – 사람이 강할 때와 약할 때

엘리야 본받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은 누구나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인간의 이중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강할 때는 큰일을 행할 수 있지만 약할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경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할 때 아합의 불의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룸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해졌을 때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강해지고, 언제 약해질까요? 그것은 의식의 문제인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왕상19:1-8은 이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실 때 그는 강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갈멜산에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눈에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 바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배역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왜 낙심하고, 쓰러지고, 한 숨을 쉬고 절망합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인데 왜 낙망하고 좌절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강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세벨의 협박을 받아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는 엘리야는 지치고, 절망과 고통으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현실문제에 쫓기다 보면 누구라도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집니다. 엘리야는 왜 그렇게 약해져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인식 때문입니다. 첫째는 현실을 너무 인식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기를 너무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현실을 보면 별 것 아닙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천사로 찾아왔습니다. 이 천사는 구약시대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엘리야처럼 예수에게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내 힘으로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벽에 부딪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강할 때나 약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길자연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왕성교회 담임을 맡고 있다.

기독인뉴스 김성수 국장

십자가 위에, 하늘의 부활을 보며



스위스 "루째른"에서 호수를 가로 지르는 관광선을 탔습니다. 좌우로 펼쳐지는 장면들을 바라보노라면 어느 순간 동화 속에 들어온 아이 같아집니다. 그림 같은 선착장을 몇 군데 지나면 "비츠나우" 라는 산악 기차가 보이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리기산"에 가파른 절벽을 오르는 기차를 타면, 지나온 호수의 전경들이 아래로 내려다보입니다.

감탄과 감동에 자연은 나에게 멋적은 웃음을 보이지만 난 부끄러움 없이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와우! 마지막 역에서 내려 숨 가쁘게 정상을 향하여 제일 먼저 뛰었습니다. 언제나 이곳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달리는 내 모습에 이날은 남다른 의미를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리기"의 십자가는 마치 갈보리 언덕처럼 정상에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벤치가 놓여 있습니다. 감히 벤치에 앉을 수가 없어 땅 바닥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십자가를 뒤 덮은 무거운 마음에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깊은 나의 죄의 무게가 짓누르고 십자가의 고통을 가슴으로 느껴 보았습니다. 무겁게 그리고 처절하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아파했습니다.

잠간의 침묵이 흐르고 고개를 들어 십자가 위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먹구름이 태풍처럼 밀려가면서 어느새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늘이 부활했다."라고 외치면서 벌떡 일어나, 십자가 위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상상 했습니다. 그날, 잊을 수 없는 그날, "리기산"에서 하늘이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리기산"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나의 갈보리 언덕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입법예고를 즉각 취소하라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24일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 제장(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곽노현 교육감이 적극 밀어붙였던 학생인권조례의 후속조치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청의 상위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발표하였고, 이번 달 개정안 통과로 학생 생활지도 주요 항목인 두발과 복장 규칙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게 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입법예고한 것은 이나라 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곽노현 씨는 더구나 학교폭력과 왕따, 자살 등 심각한 청소년 현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옹호관 입법예고, 전교조 챙기기 같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만 주력하고 있다. 곽 씨는 진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자신의 인성과 덕성, 지성을 갈고 닦아야 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 학생의 자유를 빙자해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의 관여를 봉쇄해버려, 학생들로 하여금 약육강식의 비정한 세계를 학교에서부터 체험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곽노현 씨는 2억원을 박명기 교수에게 건네 후보 매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이미 교육감직을 수행할 명분을 상실한 상황이다. 더구나 3심 최종판결이 7월쯤으로 예정돼, 사실상 시한부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한 기관의 수장이 1심에 이어 2심 판결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사죄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이다. 더구나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기관의 수장이라면 더욱 무겁고 엄격한 도덕의식을 가져야 마땅한데, 도리어 곽 씨는 "하느님도 칭찬할 사람" 운운하며 기독교까지 모독하고 있다.

곽 씨는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뿐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등을 즉각 취소하라. 이와 함께 더 이상 '몽니'를 그만 부리고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 앞에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하고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자중하는 것이 교육감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부활의 승리 (고전15장 51절 ~ 58절)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거나 죽은 교주를 신격화 해 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요11:25~26에서 주님은"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성인도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한 마디로 말하면 승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적과 싸워 이긴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적이 누구입니까? 부활은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바로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54). 아담 이후 인류의 최대의 적은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 승리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 도달한 사람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지위도 문제가 아니고 돈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관계없고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직 문제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단 말입니까? 부활이 해답입니다. 참으로 부활이 확실하다면 죽음은 잠시의 안식일 따름입니다. 누가 안식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어제밤 잠자리에 드시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고 공포에 사로잡혔던 분이 계십니까? 왜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보고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요11:11)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선언하신 유명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자는 죽어도 살겠고..."(요11:25)였습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완벽한 처방이요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승리를 입증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십시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감사할 것 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무엇보다 이 놀라운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고 싶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의 노래요 찬미인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55절) 사망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승리의 합창에 동참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기환 목사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전원중앙교회 담임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담임 소진우 목사

라이즈월드미션총재
지저스타임즈 사장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CTS 칼럼리스트
백석TV 칼럼리스트
예복교회 담임

1. 참고 견디면

성경: 창세기 26장1절-11절 찬송가 336장

본문을 보면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에 흉년이 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가서 현실적인 풍요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근의 땅 그랄에 머무를 것이냐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현실적 풍요와 만족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근을 택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닥쳐와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참고 견디면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이삭의 축복

성경: 창세기 26장12절-13절 찬송가 291장

본문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자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랄에 머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체에 큰 기쁨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복 받기 위한 순종이 아닌 말씀 자체에 기쁨을 누리며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성경: 창세기 26장14절-22절 찬송가 223장

본문을 보면 이삭이 총 일곱 번에 걸쳐 우물을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 우물을 아비멜렉에게 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삭이 아비멜렉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왕보다 더욱 크게 강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온유하게 처신했던 것입니다. 참된 용기는 외적혈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사소한 것에 목숨걸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의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 바위에 붙은 종이처럼

성경: 창세기 26장23절-35절 찬송가 431장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삭과 화친조약을 맺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대적하면 유익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찾아와 굴복한 것입니다. 성도는 종이 조각이 바위에 접착되면 태풍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과 밀착되어야 언제나 세상세력에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도 예수님께 바짝 붙어사는 삶으로 세상의 권세를 물리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하나님의 뜻을 불신한 리브가

성경: 창세기 27장1절-17절 찬송가 449장

본문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속임수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잉태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믿음이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불신의 늪으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편을 속이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만큼은 하나님의 뜻인 말씀 붙잡고 최후의 순간까지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 창세기 27장18절-29절 찬송가 363장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거짓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 졌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탄치 않은 곤고한 날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지극이 인간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 쟁취하는 자와 빼앗기는 자

성경: 창세기 27장29절-40절 찬송가 493장

본문을 보면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길줄 모르고 물질적인 가치 추구에만 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동생에게 세상의 물질보다 더 영원한 하늘의 복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것들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잠시잠깐 스쳐 지나가는 세상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 선한 과정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성경: 창세기 27장41절-46절 찬송가 542장

본문을 보면 야곱에 속은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울분과 패배 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계획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잘못된 방법은 용납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선한 목적을 위해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안겨다 주었다면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 좋은 날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 창세기 28장1절-5절 찬송가 309장

27장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하였으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을 언약적 상속자로 여기고 분명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야곱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야곱의 삶은 반드시 복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좋은날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

성경: 창세기 28장6절-22절 찬송가 465장

본문을 보면 야곱은 들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매우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야곱은 이상 중에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고 자던 돌로 단을 쌓고 다시 단을 쌓겠다는 보증으로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 주관하시는 하나님(1)

성경: 창세기 29장1절-14절 찬송가 365장

본문을 보면 야곱은 하란에 도착하여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실행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주관하시는 하나님(2)

성경: 창세기 29장1절-14절 찬송가 370장

본문을 보면 하란에 도착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850Km의 긴 거리입니다. 치한이 좋지 않은 당시에 한달 정도의 시간을 걸어서 가는 도중 아무 사고없이 도착 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까지 보호하심을 보장 받는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 주관하시는 하나님(3)

성경: 창세기 29장1절-14절 찬송가 516장

본문을 보면 오랫동안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목자들과 라헬과 라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눈물 흘리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야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알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기도로 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 새롭게 변화된 야곱

성경: 창세기 29장14절-20절 찬송가 284장

본문을 보면 라반의 집에서 한달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체험적이고 확신있는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탄식의 마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무화과 잎사귀 옷에
가죽옷을 주신 주님
冷氣속에 노출되어 떠는
가련한 저 종아리들을
감싸 주소서

끈적이는 눈동자 속에
미혹의 미끼들이 출렁이고
이 밤의 路上에도
저들의 입술과 마음은
서로 새끼 꼬려 하는데...

푸르름을 타고 내려오는
하늘 光線으로 녹여주소서
이브를 노리는 사단의
死色의 거리에
벗어진 운무 사이의 섬광으로
내리 쏟으소서

유혹의 자욱으로 印쳐진
이끼 낀 마음 밭에
떡잎 져 가는 拍動 위에
허공을 맴도는 손길들의 그 영상 위에

그리고
향방 없는 발끝마다에
참 진리를 부어 주소서
가득하게 부어 주시어
참 평화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소서

정기환 詩 모음
그리움은 파도를 다고 중에서

꿈을 이루고!
터를 닦으러!



담임 정연수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정규예배
주일 전통예배(1부) 오전 9시 (래인보우 아트홀)
주일 현대예배(2부) 오전 11시(래인보우 비전홀)
주일 청년예배 오후 2시(래인보우 아트홀)
주일 오후예배 오후 3시(래인보우 비전홀)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색동홀)
아동부 예배 주일 오전 11:00(교육관)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00(래인보우 아트홀)

기도회 및 모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래인보우 아트홀)
수요기도회 1부 매주 수요일 오전 10:30(래인보우 아트홀)
수요기도회 2부 매주 수요일 오후 7:30(래인보우 아트홀)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9:00(래인보우 비전홀)
새가족모임(새주간) 주일 오전 9:30(새가족실)
경로교실 매주 목요일 오전 11:00(래인보우 아트홀)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www.myhyosung.net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46(효성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499-1)
Tel . 032)552-5200 Fax. 552-5204

오시는길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현병우 목사
(본지 부사장)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월·화 영성사역 :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영성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시96:6~9)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다."

예배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비 고
새 벽 기 도	매일새벽 5:30	본당	성경강해
주 일 1부 예 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 일 2부 예 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열린예배
주 일 3부 예 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 일 4부 예 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로 드려질 수있음
주 일 5부 예 배	주일 오후 4:00	본당	청년예배
수 요 기 도 예 배	수요일 오후 9:00	본당	철야기도회
각 구 역 별 예 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 구역별 교우 가정	매월 마지막 주는 연합예배

교회학교 예배안내

부 서 별	시 간	장 소	대 상
유 치 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교육관	취학 전 아동
유 년 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교육관	초등학교 1-3학년
소 년 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 등 부	주일 오전 11:3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동급연령
고 등 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동급연령
청 년 2 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4세 미혼
청 년 1 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5세 이상 미혼



당회장 엄영수 목사
(대기협 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광교회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10-9
대표전화 : 031)384-7408 부목사실 : 384-9744, 385-8933

목회탐방 안천교회 유영섭 목사

안천교회는 늘 행복합니다

믿음생활에 행복한 성도가 있어야 교회는 부흥된다


부활절 예배.


담임 유영섭 목사

안천교회(유영섭 담임목사)는 수원 비행장에서 근접한 지역이요 가깝게는 병점역과 용주사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며 머지않아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화성시 중심지로 발전하게 된다. 1973년 7월1일 안천교회가 개척되었고, 유 목사는 1992년 7월 12일에 부임을 했다. 부활절을 맞은 안천교회는 2012년 4월 8일 현재 약 40년이 되고 있다. 2012년 안천의 3대 비전을 보면"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변화된 세상"이다. 표어는"주 안에 굳게 서는 교회"이며, 기도의 제목은 1.화성시를 저희에게 주소서(지역복음화), 2.교회대지 2,000평을 주소서(선교센터), 3.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새로운 교회, 사랑의 봉사가 언제나 뜨거운 교회, 4.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 자기보다 지체를 더 사랑하는 성도, 부귀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는 성도 등 감동적인 실천사항들로 넘친다.

당회장 유영섭 목사는 "우리 안천교회는 지역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그동안 참으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발전되면서 더불어서 교회가 성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교회가 발전을 하면서 미흡한 점도 많았고, 미처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교회가 은혜롭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부활절을 맞아 우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단결된 마음, 충성을 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어 늘 감사하지요. 게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뜨거운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직분을 잘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성도님들이 주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항상 교육과 훈련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 안천교회는 40년 동안 다섯 분의 목회자들이 바뀌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40년의 세월은 짧지 않습니다. 물론 40년 세월에 비하면 교회성장은 저조했다고 봅니다. 물론 열악한 지역으로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인내를 갖고 자랑스럽게도 서로가 가족같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믿음생활을 잘해주었다고 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한때 개발이 중단되었던 이 지역이 올 가을부터 다시 재개되어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이 정리되고 교회도 더불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있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천교회 성도님들의 자랑이 있다면

우리교회가 99년도에 화재로 인해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온 교인들은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하나가 되어 다시 교회건축을 위하여 5년 동안 주야로 준비 기도를 해온 가운데 교회가 다시 건축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화재 이전의 우리 안천교회는 70평정도 되는 조그마한 시골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전소되어버린 교회를 다시 신축하면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연건평 960평에 2,000만원으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성도님들과의 결심과 약속은 빚을 지지 않고 교회를 건축하자는데 있었습니다. 사실 그 결과 3년 6개월에 거쳐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빚을 지지 않고 기도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당시 150명의 성도들은 물론 장로님들이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에 물질로도 그랬지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교회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생각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으며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안천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앞장 서 왔기에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안천교회는 시무 장로님이 다섯 분, 은퇴 장로님이 한분 계십니다. 따라서 시무 권사님이 여섯 분, 은퇴 권사님 여섯 분이 계십니다.

열악한 지역에서 안천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잘 만나야 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성도님들을 정말 잘 만났기에 복 있는 목회자입니다. 따라서 교회성장의 비결을 말한다면 성도님들에게 영성교육으로 제자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회철학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생활에 성도님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생활하면서 짜증스럽고 힘들어하고 교회생활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믿음생활하면서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목회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교회도 섬기고, 성도도 사랑하고,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기쁨이 나오고 기쁨이 있어야 행복하고, 또한 행복해야 열심을 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영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성도님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성도의 주변은 자동적으로 변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성도는 행복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점이 저의 목회의 방침이며 또 성도님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목양일념에 있어서 비전이 있다면?

저는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시대가 변하면 교회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가 후임자로 와서 그가 더 큰 비전을 세워가며 교회를 잘 섬겨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소망했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은퇴를 아름답게 하자는 것이 목양일념이면서 비전입니다.

이날 만나본 유영섭 목사는 이명순 사모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으며, 아들 딸 남매 모두 다 결혼을 했다. 또한 유 목사는 목회에 큰 힘이 되어준 동반자인 사모님을 늘 고맙게 생각하며 사랑하는 내조자라며 자랑을 아끼지 않는다.

유영섭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총회 제53회, 제56회, 2012년 제59회 현 총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며,(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이하-예총연) 현 대표회장이다.


안천교회 전경


칸타타

■ 포토에세이 ■



이성교/시인,성신여대 교수

"오랜 기다림으로"

오랜 기다림으로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온 누리엔
지혜의 바람이 일고,

꽃 나무들은 제각기
자란 모습으로
무엇을 증얼거리고 있습니다.

오, 찬란한 보람이여!
이제 당신은
아무데서나
복음을 전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돌아가서
듣는 해와
돌아오는 배를 맞고
풍성한 잔치를 벌여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정기환 목사와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를 마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난 2월 20일 대한항공 627편 3시25분!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인도네시아로 향했다. 인도네시아 나라를 품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원들 중에 교회 사역이 겹치는 일로 두 분이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팀 내에 가득했던 터라 기대감 보다는 아쉬움이 컸던 출발이었다.

한국시간 밤 10시, 현지시간 12시(시차 2시간)에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심사를 거쳐 자카르타 공항에 들어서니 더운 열기와 습한 공기가 우리 일행을 숨 막힐 지경이었다. 최대한 짐을 간단히 하자는 의견에 따라 짐 찾는 시간 없이 바로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다.

특송을 담당하고 있던 학생들이 음악 CD를 잘못 챙겨오고 한 사람은 빈 케이스만 가져오는 바람에 집회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맡겨 놓고 챙기지 못했던 나의 실수가 가장 컸다고 생각했다. 그 때부터 처음 만난 선교사님에게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메일을 통해 음악 CD를 구울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통에 선교사님의 입장을 난처하게 해 드리게 되었음을 지금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안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셨고 현지 사정이 CD플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방송시스템이 어떤 현황인지도 체크하지 못했음에 당황하게 되었으며, 그 와중에 40분 공연을 할 수 있느냐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으나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에 오르게 되었다.

다음 선교지를 방문할 때에는 준비해야 하는 과정과 일정에 대해 선교사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소통하며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준비된 승합차를 통해 자카르타 서부지역인 반둥시의 찌안쭈르군 찌랑면에 위치한 쉐마신학교로 이동하게 되었다. 3시간 정도 차로 이동하여 쉐마 신학교에 도착, 학생들의 기숙사에서 간단하게 짐을 정리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

잠자리에 들고 얼마 안 되어 방송으로 원주민들의 기도소리 같은 것이 들렸으며, 조금 지나니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영혼을 타고 흐르는 평안함을 가져다주는 가운데 잠을 청하게 되었다.

21일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씻고 학생들이 기다리는 식당으로 향했다. 신학교 학생들의 식사는 밥과 양념된 삶은 계란 한 개가 전부였다. 이것도 그들에게는 귀한 식단이라고 한다. 주식으로 먹는 쌀 외에 부식은 신학교 앞마당에서 재배하는 채소가 전부였다.



그럼에도 쉐마신학교 학생들은 식사 전과 식사 후에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식사를 시작하고 마친다. 한국의 풍요로운 식단에도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부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쉐마 신학교는 4년 수업과정에 1년 실습과정을 통과하면 MDV과정이 끝나 현지인 사역자로 사역을 한다고 한다. 외국인의 선교활동에는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를 길러 내는 것이 인도네시아 선교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한다.

쉐마 신학교는 강의실 두 개와 기숙사,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명의 신학생들이 훈련되어지고 있었다.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 신학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가르친다고 한다.

새벽에 방송에서 들렸던 기도소리는 이슬람의 기도소리였고 나중에 들렸던 노래 소리는 신학생들의 새벽기도를 시작하는 찬양소리였다고 한다. 이들의 새벽예배는 두 시간 정도 드려진다고 한다. 이곳은 유럽의 식민지 시절 네델란드에서 전도하여 마을을 이룬 부락이라고 한다. 이 동네에만 이슬람단체가 10여 곳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사역을 방해하며 위협한다고 했다.

오전에 신학생들과 함께 찬양과 율동을 배우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진 후 발표회를 가졌고, 스마트폰에 마이크를 연결 해 준비된 순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신학생들과 점심을 함께 먹은 후 새로 신학교에 지어져야 할 강의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기숙사동 앞에 건물을 올리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한 흔적이 보였는데 지원이 끊기고 자꾸 연기되다보니 심어 놓은 철근이 녹이 슬어 고철로 철근을 끊어 내다 팔았다고 한다. 강의실을 지으려고 하려던 기초공사의 철근을 끊어 내다 팔 때 선교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과 신학교를 운영해 나가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삶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인도네시아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올려 드리는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어 지길 간절히 소망해 보았다.

점심식사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 '알룰룽'이라는 이 지역의 민속공연을 관람하고 출발하기로 했다. 대나무로 만든 악기로 연주를 하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연을 하고 대나무로 만든 악기로 함께 연주하는 시간도 가져보는 즐거운 경험이었다. 대나무로 만든 악기 하나하나가 다른 계이름을 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숫자를 보며 팝송을 연주하는데 관객이 악기 연주로 하나 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난 후 화산지대에 있는 숙소로 향했다.

화산지대에 있는 숙소는 고산지대에 자리하고 있어 더위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인도네시아의 20% 부자들은 화산지대의 고산지역에 집을 지어놓고 주말에 이용한다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빈부의 격차가 크고 중간층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숙소에 도착 한 후 '찌아트'라는 화산지역 노천온천에 다녀왔다. 이곳은 주로 밤에 이용하는 곳인데 밤공기는 지대가 높아 서늘한데 비해 화산에서 흘러나온 뜨거운 온천수의 넓은 공간이 그동안의 피로를 싹 가시게 하는 듯 했다. 선교사님이 저녁메뉴로 파인애플 볶은 밥을 추천해 주셨는데 동행한 식구들이 저녁생각이 없다고 해서 조금만 시켰다.

그런데 안 먹었으면 후회했을 것 같다며 맛있게 먹었다. 정기환 목사님도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팀들의 말을 들으며 숙소에 쉬고 계시는 목사님께 송구스러웠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목사님은 숙소에서 쉬려고 하셨는데 온수가 나오지 않아 (고산지대라 온수로 씻어야 함) 우리 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온수가 나오도록 조치하느라 쉬지도 못하셨다고 한다. 숙소로 돌아 온 우리는 오랜만에 푹신한 침대에서 시원하게 잠을 청했다.

오전에 신학생들과 함께 찬양과 율동을 배우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진 후 발표회를 가졌고, 스마트폰에 마이크를 연결 해 준비된 순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신학생들과 점심을 함께 먹은 후 새로 신학교에 지어져야 할 강의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기숙사동 앞에 건물을 올리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한 흔적이 보였는데 지원이 끊기고 자꾸 연기되다보니 심어 놓은 철근이 녹이 슬어 고철로 철근을 끊어 내다 팔았다고 한다. 강의실을 지으려고 하려던 기초공사의 철근을 끊어 내다 팔 때 선교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과 신학교를 운영해 나가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삶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인도네시아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올려 드리는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어 지길 간절히 소망해 보았다.

점심식사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 '알룰룽'이라는 이 지역의 민속공연을 관람하고 출발하기로 했다. 대나무로 만든 악기로 연주를 하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연을 하고 대나무로 만든 악기로 함께 연주하는 시간도 가져보는 즐거운 경험이었다. 대나무로 만든 악기 하나하나가 다른 계이름을 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숫자를 보며 팝송을 연주하는데 관객이 악기 연주로 하나 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난 후 화산지대에 있는 숙소로 향했다.

화산지대에 있는 숙소는 고산지대에 자리하고 있어 더위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인도네시아의 20% 부자들은 화산지대의 고산지역에 집을 지어놓고 주말에 이용한다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빈부의 격차가 크고 중간층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숙소에 도착 한 후 '찌아트'라는 화산지역 노천온천에 다녀왔다. 이곳은 주로 밤에 이용하는 곳인데 밤공기는 지대가 높아 서늘한데 비해 화산에서 흘러나온 뜨거운 온천수의 넓은 공간이 그동안의 피로를 싹 가시게 하는 듯 했다. 선교사님이 저녁메뉴로 파인애플 볶은 밥을 추천해 주셨는데 동행한 식구들이 저녁생각이 없다고 해서 조금만 시켰다.

그런데 안 먹었으면 후회했을 것 같다며 맛있게 먹었다. 정기환 목사님도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팀들의 말을 들으며 숙소에 쉬고 계시는 목사님께 송구스러웠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목사님은 숙소에서 쉬려고 하셨는데 온수가 나오지 않아 (고산지대라 온수로 씻어야 함) 우리 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온수가 나오도록 조치하느라 쉬지도 못하셨다고 한다. 숙소로 돌아 온 우리는 오랜만에 푹신한 침대에서 시원하게 잠을 청했다.

■ 칼럼 ■

김정은 발작의 끝은 자멸 밖에

미사일 불꽃놀이 실패로 궁지, 김정은 발작적 도발은 자승자박

김정은이 조선중앙방송을 통하여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가 "이명박 쥐XX 무리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며 "역적패당의 분별없는 도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 된다"고 극단적 위협 통첩을 해 온데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외무성 대변인 성명과 조평통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1] 내용면에서

특이한 수단과 방법으로, 도발 근원인 리00역적패당과 동아일보 KBS MBC YTN 3~4분 이내에 초토화 시키겠다고 하여 타격목표와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 했다.

[2] 시기적으로

김정일 사망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軍 및 국가지도력의 공백을 정치군사적 미숙아인 김정은을 내세워 서둘러서 미봉(彌縫)하는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각종 부작용과 저항으로 인해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연착륙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시점이다.

게다가 1월 8일 김정은 30세(28세?) 생일과 2월 16일 김정일 70세(71세?) 생일, 4월 15일 김일성 100세 생일행사를 대대적으로 경축하는 분위기속에 김정은 3대세습의 당위성을 내외에 과시하려고 기획한 미사일불꽃놀이가 실패한 직후인 것이다.

특히 권력의 중심이 김정은의 고모 내외인 김경희와 장성택의 손아귀에 장악 되면서 김경희와 장성택이 스스로 인민군대장이 되어 군부원로인 오극렬 김영춘 등 김정일 세대를 밀어내고 최용해와 이영호 김정각 김원홍 등을 전면에 배치한 시점이다.

[3] 정치사회적 불온 징후로

동 서해에서 장수함 수척이 행방을 감추었다(4.5 노컷뉴스, 4.15 YTN), 북군부 잇따른 보복성전(報復聖戰)결의대회 충성경쟁 (2012.1~ 현재), 국가계획위원장 박남기 총살(2010.4),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류경 김정일 관저로 유인 체포 처형(2011.1), 당 조직지도부제1부부장 이제강 교통사고위장 제거(2011.6), 철도상 김용삼, 재정상 문일봉 처형(2011.6),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우동측 행방묘연(2012.3.25. 이후), 황해남북도 2만여 명 아사자 속출(4.24), 회령에서 김정은 타도 불온 낙서 발견(2.13, 4.23),

이번 성명은 내외적인 불안상태에서 미사일 불꽃놀이실패로 1년 치 식량을 허공에 날려 보내면서 흉흉해진 북 내부민심과 폭발직전에 다다른 북한 군부 및 몰락한 실세의 불만을 억압하고 남한 군중에 대하여는 막연한 전쟁공포 심리확산을 노린 것이다.

특히 총선패배와 SNS 살인경선, 여론조작사기경선 과 비례대표 순위조작 등 〈부정선거〉여파로 지리멸렬한 민통통진 내 〈종북반역세력〉에게 힘을 실어 줌과 동시에 정치파업 중인 MBC KBS 방송노조에 응원을 보내는 한편 종북세력에 투쟁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UN을 비롯한 미국은 물론 믿었던 중국까지 동참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과 반발을 드러낸 것으로, 대내, 대남 ,대외적 문제의 돌파구를 대남도발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만회 반전시켜 보겠다는 자해 공갈단 수법인 것이다.

그러나 어떤 도발로도 김정은의 노림수대로 대내/대남/대외적 난국을 극적으로 돌파 할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가능성은 전무 하다. 김정은이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띄우기에는 권력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반대파에게 역습의 기회와 빌미만 주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간과해선 아니 될 것은 장사정포와 행방이 묘연해진 잠수함과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로켓부대의 동정이다. 서해5도서와 문산 철원 고성 등 휴전선인근지역이나 울진 월성 영광 등 원자력 발전소와 항만, 전자통신 교통 기반시설 경계와 대비태세이다.

만약 김정은이 휴전선 이남의 군사목표는 물론 산업시설이나 다중이용 민간시설을 공격한다면 이는 명백한 전쟁도발이기 때문에 경고 없이 북의 전쟁지도부와 전투력을 초토화 해 버려야 함은 물론 김정은과 함께 국내 종북 반역세력도 일시에 박멸해야 한다.

대한민국교회에 보내는 편지

할렐루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보혈의 능력이 고난주간을 맞이한 대한민국 교회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교계 목사 장로 지도자 여러분과 6만 교회 일천만 성도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는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체류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2004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북한에서 살면서 우상숭배만하며 살아온 제가 오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혁명의 나팔수에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저 북녘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떠세우는 방송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국대사관 단식현장에서 대한민국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됨은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집회에 행동으로 동참하여주기를 간절히 간청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알려진 것처럼 지금 탈북자문제는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조직을 떠나 나라와 국적을 떠나 세계적인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저는 북한 영화 민족의 태양이라는 영화에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태양이 김일성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시지요 이 영화에서 김일성은 천도교인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조선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극 성황당에서 나오는 전도부인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시절 북한의 세계상식이라는 책을 통하여 두 줄로 씌어진 예수를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신이고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라고 교육받고 승냥이라는 제목의 반기독교 영화를 통하여 교회당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몰래 훔쳐듣고 일본경찰에 밀고하여 애국자들을 죽이고 병원의 고아들에게 생체실험 신약을 투약하여 죽이고 사과를 주어먹었다고 이미에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기는 선교사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탈북하여 일주일간 장맛비속을 헤치며 길을 걷다 강냉이 밭에서 뛰어나온 두 명의 처녀를 만나게 되고 함께 걷던 그들이 중국의 한족에게 잡혀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남자답게 맞서지 못하고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팔려가는 여성들을 보면서도 나서지 못했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 물어물어 찾은 곳은 중국의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천만 우리 동포가 함께 그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팔려가는 우리 처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였고 공안에 두 번의 체포가 있었지만 극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제가 함께 지내고 있던 21살 청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그의 신분이 없어 차디찬 냉장고에 20여일을 보관한 시신을 보며 그 몸에 수의라도 입혀서 보내고 싶어 중국의 교회를 찾았지만 탈북자에게 수의를 팔면 자기들이 다친다고 하며 결국 사지 못하고 십자가 새겨진 하얀 백포를 구하여 두 시간만에 가루가 되어 돌아온 그의 유골을 함도 없이 중국 글자가 적힌 신문에 싸서 이름도 모르는 중국의 강에 뿌리며 피눈물을 흘렸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고 누가 말하였습니까? 바로 탈북자들이 상갓집 개만도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살면서 하나님이 제 생명을 구해주신다면 저에게 자유로운 신분만 주신다면 정착금도 다 하나님께 바치고 탈북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탈북자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겠다고 서원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는 번쩍이는 네온싸인과 돈의 유혹 온갖 욕심을 뿌리치지 못하고 세상길로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온 탕자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그 고난 주간에 중국에서 죽어가는 우리 탈북자들을 위하여 금식기도하며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에 편지로 호소합니다.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로 세워진 한국의 교회가 3.1 운동의 앞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죽어가는 탈북자들의 외침과 스러져 가는 촛불에 무응답하며 방관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3대 세습을 통하여 출범한 김정은 정권이 탈북자의 대량 색출을 위하여 중국공안당국과 공안협조조약을 체결하고 특수 체포 조까지 중국에 파견하여 탈북자체포에 나서고 있고 북한내부의 탈북자 가족들을 색출하여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강제북송반대 집회를 하던 얼마 전 저의 막내 동생도 북한내부에서 보위부의 체포 망에 걸려 체포되었습니다. 생사를 모르는 내 동생 때문에라도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이제 더는 참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박선영의원의 단식을 시작으로 탈북자들의 단식투쟁에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기도한다고 하며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하는 집회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장로들 그리고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하며 저희의 스러져 가는 촛불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십여 명이 비 맞으며 촛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참여하여주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가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여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촛불을 들고 나선 엄마 등에 업힌 갓난아기와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 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여러분들만의 울타리를 쳐놓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겁내고 있습니다. 왜 3.1 운동 때처럼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교단과 교회와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이처럼 분열시키고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한 채 자기들만의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위안하게 만듭니까?

대한민국 교회지도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북한의 문이 열려 평양으로 갈 수만 있다면 돈다발을 들고 찾아갈 준비는 되어 있으면서 탈북자의 인권을 외면하는 우리모습을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비오는 지금 이 밤에 한국기독교의 책임 있는 지도자분들께 호소합니다. 연합하여 생명 살리는 집회를 개최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위대한 부흥강사의 설교집회보다 죽어가는 탈북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집회를 개최하여 주십시오 천만기독교인이 일떠선다면 탈북자 강제북송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몸소 행하신 그 사랑의 산 모범으로 기독교지도자여러분과 천만기독교인들의 용기 있는 결단력과 행함으로 탈북자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초교파적인 집회를 개최하여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기도로 동참한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이제 교회 안이 아닌 밖에 나와서 함께 소리를 외쳐주십시오. 우리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탈북자를 사용하시여 대한민국 교회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통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장을 여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사지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그들에게 여러분의 생명 촛불을 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통일 된 후에 한국교회여러분은 북한 인권과 탈북자인권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탈북자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지금 여러분의 행동으로 연합된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음지에 있지 않고 양지로 나올 수 있게 한국교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이제 탈북자들이 인권문제를 위해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직접 발로 뛸 것입니다. 시청광장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탈북자들과 함께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통성기도가 울리게 전 세계에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한민국 교회가 보여 줄 수 있게 연합하여주십시오.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쏘련을 70년 만에 무너뜨리시고 김일성을 70년 공산혁명 끝에 무너뜨리고 김정일도 70에 끝장을 내버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조국이 북한의 기독교 말살로 흘린 순교자의 피가 분단 70년이 되는2015년에 인간우상숭배의 사슬에 매여 있는 북한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대한민국을 일떠세우실 복음통일의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탈북자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북녘 땅을 하나님께로 ~~~~~ 복음통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민족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지난 4월 초 새벽 중국 대사관 앞 옥인교회 단식 중 김충성 선교사가 보낸 편지다.

(사)한기보 도고온천에서 대표회장 이·취임식 가져

"먼저 화합과 단합을 이루어 가며, 보수원형운동에 힘쓸 터"



이범성 목사
대표회장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이하-한기보)는 12일(목)~13일 양일간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도고로얄관광호텔 세미나실에서 대표회장 이.취임감사예배 및 한기보 화합을 위한 세미나 및 단합대회를 가졌다.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김 암 목사(예장 보수합동총회 증경총회장)의 기도가 드려지고, 사금열 목사(협의회 이사)가 마6:10,고전4:20을 봉독한 후 예영수 목사(한국기독교영성연합회 총재)는"하나님 나라와 그 권능"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1.협의회와 각 교단장을, 2.대표회장 및 임원들을, 3.국가와 민족을, 4.한국교회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가 주여 삼창을 제창하고 합심하여 통성기도를 드렸다.

또한 전. 현직 대표회장의 공로패, 취임패가 교환되고,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 서기 박수용 목사, 회계 이정구 목사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직전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지난 4년 동안 협의회를 섬기면서 가장 보람되고, 자부심을 가진 가운데 섬기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교회에서 보수 원형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보수 원형의 운동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될 것을 다짐하고 제29대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를 여러분과 함께 축하한다고 했다.

또한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취임사에서 "33년의 긴 세월에 뿌리가 내려져 전통을 자랑하는 사단법인 보수교단협의회 제29대 대표회장으로 선임되어 오늘 존경하는 동역자님들 앞에서 취임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서 인사했다.

그러면서 임기동안 화합과 단합을 다짐하고, 직전 대표회장이 추구해온 보수원형 찾기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갈 것을 밝혔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단체와 기관의 분열과 갈등으로 빚어진 덕스럽지 못한 일들로 한국교회의 위상이 실추되고 주의 종들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졌다면서 본 협의회는 진리의 등불을 켜고 실추된 한국교회의 위상을 보수원형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한국교회의 실추된 위상을 회복해 나가자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본 협의회는 진리의 등불, 복음의 빛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 살리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힘써 나가자고 주문했다.



또한 각종 이단들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단 신천지는 교묘하게 교회에 잠식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며 성도들을 끌고 간다고 했다. 이러한 이단들과 WCC와 같은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지향하는 이러한 단체들은 본 협의회는 단호한 대처만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사)본 협의회 중부지부장 이상오 목사의 축사에 이어 홀리 s 예수선교단의 축가와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가 광고를, 남성운 목사(증경대표회장)축도로 마쳤다.

한편 한기보 대표회장 이 목사는 각 교단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교단별 적사대회 등 단합대회를 통해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으며, 이범성 목사는 지난 2월 16일 한기보 제29대 대표회장에 선출되어 12일 많은 동역자, 각 교단장의 축하를 받으며 대표회장에 취임했다.

대한기독사진가협회총회 엄영수 목사 대표회장 선출

대한기독사진가협회/대한기독교영상선교회는 4월 16일 오후6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대광교회 교육관에서 2012년 정기총회를 열고 엄영수 목사(대광교회 당회장)가 대기협 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됐다.

정기총회에 앞서 회장 이진호 목사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고 김종욱 목사가 기도를, 회장 이 목사는 전도서 7:1절을 인용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하고 엄영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회장 이진호 목사 사회로 진행된 회무처리에서 각부보고와 정관개정이 있은 후 임원선거에 들어가 엄영수 목사가 만장일치 회장에 선출되었다.

이날 신임회장 엄영수 목사는 우여곡절 끝에 우리 "대한기독사진가협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다면서 그동안 변함없이 함께하여 준 전국 1,100여명의 회원들과 전임회장 이상중 목사, 이진호 목사, 또는 모든 임원에게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했다.



직전회장 이진호 목사(좌) 회장 엄영수 목사(우)

이어 엄 회장은 무엇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저의 타고난 성격인지라 1년 동안 열심히 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진협회의 일은 누구 한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에서 이루어진다면서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엄 회장은 대한기독사진가협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본 대기협의 모임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협회라고 전했다.

또한 엄 목사는 좋은 사진 한 장은 그 어떤 말보다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생활에 좋은 교훈을 주는 자료가 된다하고, 사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에 필요한 영상선교에도 앞장서는 일이 되며, 협회를 통하여 신앙의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진 활동을 전개하면서 발전한 기독사진작가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회장 엄영수 목사는 누구나 평안한 마음으로 사진활동을 하고 사진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다같이 할 수 있다면서 이곳에서 사랑과 친교를 나누고 재미나고 즐거운 사진활동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신임회장으로서의 소감을 피력했다.

신임원: ◇고문: 이상중 목사, 이진호 목사, ◇회장: 엄영수 목사, ◇부회장: 정기남 목사, 김갑식 목사, 김종욱 목사, 나순자 권사, ◇감사: 이진호 목사, 천현옥 목사, ◇회계: 전영란 권사, ◇운영위원: 김영준 목사, 조성삼 목사, 김윤경 목사, 신철이 목사, 이상철 장로, 주승철 집사, 최건기 집사, 김기환 집사, 오준규 집사, 최정희 집사, ◇사무국: 사무국장 이은경 집사, 총무 박현주 집사, ◇전국지회장: 서울지회장 강승조 집사, 경기지회장 장학규 목사, 인천지회장 천현옥 목사, 전북지회장 김종인 목사, 충청지회장 곽완근 목사, 경상지회장 김길수 집사, 제주지회장 김대곤 목사 등이다.



대기협 사진작가 기념

국제복음선교회 강원, 하조대에서 봄 수련회 개최

교파를 초월하여 뜻을 같이한 본회는 일심단결로 세계를 향하여

"사랑하는 목사님!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주제로 국제복음선교회(회장 이재갑 목사)가 강원도 양양 하조대소풍에서 4월 23일~25일(2박3일)까지 춘계 수련회를 가졌다.

23일 오후 3시 도착예배를 백종만 목사 인도로 시작되어 지요한 목사는 누가복음11:27~28절을 봉독하고"말씀회복의 축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국제복음선교회 회원 간의 단합과 화합을 목적으로 족구대회, 척사대회, 오색약수 등산, 조별 미팅, 캠프파이어, 바닷가 묵상 등으로 주 안에서 유쾌하고 영과 육이 새롭게 충전되는, 봄 수련회로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회장 이재갑 목사는 본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세계선교를 위하여 뜻을 같이한 목사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모인 단체이며 이번 봄 수련회를 통하여 국제복음선교회 회원들이 일심단결로 오직 주의 복음만을 세계 곳곳에 나아가 외치고 있는 단체라며 소개했다. 2박 3일 동안 지요한 목사, 강성구 목사, 고재만 목사 등이 특별강사로 나섰다. 마지막 날 회장 이재갑 목사는 폐회예배를 끝으로 시상식을 갖고 각기 목양지를 향해 돌아갔다.



한편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본 선교회를 방문, 인사를 드리고, 방송신문사와 문서선교를 위하여 기도회를 갖고 국제복음선교회 임원들로 구성된 상임이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재갑 목사, 백종만 목사, 김동훈 목사, 계승창 목사, 이현구 목사, 송요엘 목사, 한흥석 목사, 이성민 목사, 하종우 목사, 최낙현 목사, 이보배강도사 등이 상임이사로 위촉되었다.

국제복음선교회(대표회장 이재갑 목사)는 매월 문서선교 후원을 적극 돕기로 약속하고 후원금을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에게 전달했다.

피종진 목사 5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1(화)~ 3(목)	필리핀(Philippines) 마닐라선교대회, 장소: 마닐라체육관 주최: 글로벌세계선교회(대회장 남은미 목사) ☎ 010-7705-8422
4(금)~ 5(토)	김포 강림기도원(원장 조경숙 목사) ☎ 010-7296-0691
6(주)~ 9(수)	광명동성교회(이광섭 목사) ☎(02)2060-4591
6(주일) 저녁	서울 지구촌교회(김진옥 목사) ☎ 010-3443-1541
7(월) 오전	교회성장 세미나,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주최: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부흥협의회(총재 강영선 목사)
8(화) 오후	인천 사랑의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9(수) 오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1C선교연합성회(대회장 김시중 목사) ☎ 010-9195-9596
10(목)~12(토)	서울 개포소망교회(연인애 목사) ☎(02)573-7797
14(월~15(화)	서울 큰영광교회(윤영옥 목사) ☎(02)532-7731
15(화) 오후	한국기독교문화예술진흥원(총재 피종진 목사, 원장 조영식 목사) ☎ 010-9916-5477
16(수)~18(금)	영주 풍기교회(임석민 목사) ☎(054)636-6229
20(주일) 오후	인천 송도성령교회(조강원 목사) ☎(032)834-8291
21(월) 오후	한국기독교목회자연수원(원장 이재범 목사) ☎(032)668-3191
21(월)~24(목)	서울 강남생수기도원(윤순덕 목사) ☎(02)2683-4202
24(목)~26(토)	부천 은혜와사랑의교회(김항숙 목사) ☎ 010-9076-6737
25(금) 철야	안양 갈멜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3
27(주)~28(월)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남서울중앙교회 온성도신앙단합대회
28(월)~30(수)	제천 새제천교회(정태영 목사) ☎(043)644-4222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TEL : (02)3411-9191
FAX : (02)401-7770

축 부활

소진우 목사 2011년-2012년 성회일정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1월
1/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5 동탄사랑의교회(이주훈 목사)
7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9~15 신년특별축복성회(예복교회)
13 감리교단 제직세미나
16~19 성마을교회(권동희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4~7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011년 2월
31~4 캄보디아 선교대성회
6 효창중앙교회(최복태 목사)
7~9 술산반석교회(김형진 목사)
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4~17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0 한강중앙교회(최창규 목사)
21~23 미수교회(전용구 목사)
24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7~3/2 원당소망교회(김영호 목사)

2011년 3월
봄철축복대심방
7~10 성석교회(편재영 목사)
13~16 월계성도교회(김봉하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8~31 온누리교회(조민환 목사)

2011년 4월
4~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7~9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0~12 정기노회
12~14 장선교회(이광규 목사)
1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8~20 내곡교회(함형민 목사)
25~27 신갈장로교회(이광수 목사)

2011년 5월
2~4 서울서지방여전도연합성회
9~12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6~18 동대천교회(홍무열 목사)
24~25 남양주기독교연합성회(회장 이정근 목사)
31~6.3 선교지방문(노회선교위원회)

2011년 6월
6~8 소망큰교회(이용찬 목사)
13~17 선교지 방문
17(금)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20~22 생명나무교회(성낙근 목사)
26~7.2 심아특별기도대성회

2011년 7월
4~6 새영교회(이영근 목사)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1~15 신학생여름특별세미나
18~21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23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25~27 원주벧엘교회(김경호 목사)

2011년 8월
1~4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5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8~11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5~18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2~25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3 오산리 금식기도원
29~9/1 도곡산기도원(양예자 원장)

2011년 9월
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5~9 온누리복음화협의회(업기호 총재)
12~15 몽골 할렐루야 교회(전 용 목사)
18 성인교회(이현국 목사)
19~22 교단총회
24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6~28 성은교회(지동수 목사)

2011년 10월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3~5 양주 비젼교회(김학현 목사)
10~12 진건 퇴계원기독교연합성회(박건익 회장)
13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7~19 은천교회(허세동 목사)
23~26 성신교회(손양도 목사)
27 오산리 금식기도원
28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31~11/2 광능래교회(김상용 목사)

2011년 11월
3 베데스다기도원 (허영혜 원장)
7~9 반석교회(이종현 목사)
14~16 주안성결교회(진영학 목사)
17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1~24 주님의교회(김연경 목사)
2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8~30 새광교회(김청수 목사)

2011년 12월
5~7 성광교회(유인덕 목사)
8 성산수양관(윤호균 목사)
12~16 이든성교회
19~22 소망영성원(연인애 원장)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6~28 반석중앙교회(이명구 목사)

2012년 1월
2~4 천성교회(김영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조희연원장)
9~11 온사랑교회(최태식목사)
13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신성교회(정대호)
19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3-2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9 예제교회(류준모목사)
30-1/2 흰돌교회(송우종목사)

2012년 2월
6-9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12 예수소망교회(신동식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3-15 신갈장로교회(이광수목사)
16 성산수양관(윤호균목사)
19-22 평강교회(박성주목사)
27-29 증평평강교회(고영철목사)

2012년 3월
축복대심방
5-7 수원교회(강성우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012년 4월
2-4 하예성교회(강대종목사)
5-6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9-10 정기노회
11-13 베데스다교회(허영해목사)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6-18 동탄제자들교회(이석원목사)
23-25 주사랑교회(김주환목사)

2012년 5월
3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7-9 우리교회좋은교회(이평찬목사)
13-16 성신교회(손양도 목사)
21-24 광음교회(김동기목사)

2012년 6월
3-6 주찬양교회(윤병구목사)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11-13 성산교회(신승종목사)
18-20 새빛교회(윤형진목사)

2012년 7월
2-5 사명자영성원(송요섭원장)
9-10 신학생여름세미나
23-26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012년 8월
8-10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1-1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0-23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27-30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012년 9월
3-6 온누리연합수련회(업기호총재)
10-12 재암교회(김병식목사)
17-20 교단총회
24-26 샘물교회(이옥석목사)

2012년 10월
7-9 퇴계원장로교회(김동권목사)
15-16 정기노회
22-25 진리교회(송대규목사)
29-9/11 성지순례

2012년 11월
---9 성지순례
11-14 동서울교회(라계종목사)
19-21 경천교회(이원경목사)
26-28 예수비전교회(이승업목사)

2012년 12월
3-5 임마누엘교회(정태열목사)
10-12 예원교회(한규식목사)
17-21 필리핀선교대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CODA